

스몰캡

2025년 하반기 유망 이슈/테마



권명준 스몰캡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SUMMARY

2025년 하반기 유망 이슈/테마

유안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준입니다.

최근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스몰캡에 대한 관심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하반기 어떤 이슈/테마가 주목을 받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올해 하반기에 5가지의 이슈 및 테마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이버보안은 연초에는 딥페이크, 4월 이후에는 SKT 해킹사건으로 상반기에 관심을 받은 테마입니다. 이로 인해 낮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킹 이슈를 해소하는 정책, 기업들의 투자를 집행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보안업체들은 B2G 비중 높아, 4분기가 성수기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둘째, 체외진단입니다. 체외진단은 낮은 가격으로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강점이 뚜렷한 제품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시장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체외진단 글로벌 Top Tier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 체외진단 기업들이 여기에서 Key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와 같은 글로벌 OEM/ODM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셋째, 미디어랩사입니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광고계는 비수기라고 합니다. 24.12월부터 25.6월까지 정치적 이슈가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 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광고/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TV에서 OTT로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전환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OTT 미디어랩사의 역할 확대, 이를 통한 실적개선이 기대됩니다.

넷째, 패션입니다. 국내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K-패션의 인지도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K-셀럽들이 인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1970년대 경제성장 이후 음악, 영화, 패션으로 확산되었듯이, 현재 대한민국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패션 제품들은 다양한 디자인과 더불어 가성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이어지는 현 국면에서 글로벌 인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2026년에는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CES 전후로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유리기판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AI시장성장에 따라 발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깐요. 이와 더불어 액침냉각에 대한 사업화도 더욱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CXL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리콘 포토닉스의 개념이 정립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ENTS

PART 1. K-사이버 보안

① 국내 사이버 보안 범치는 증가 중	5
② K-사이버 보안 성장 저해요인	6
③ 2025 K-사이버 보안 관심 증가 유발 요인	9
④ 하반기 K-사이버 보안 기업 관심 확대 전망	23

PART 2. 체외진단

① 체외진단	25
② 체외진단 시장 전망	26
③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28
④ K-체외진단 주목이 필요한 이유	31
⑤ 글로벌 Top Tier와의 협력=원원전략	34

PART 3. 미디어랩사

① 광고산업	37
② 광고산업 영향 요인	39
③ 광고매체의 변화	41
④ OTT 미디어랩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42

PART 4. K-패션

① K-패션의 달라진 위상	46
② K-패션 단점들은 해소ing	47
③ K-컬처 확대에 따른 수혜	48
④ K-패션 지속 성장 가능성	50
⑤ 주목해야 할 K-패션기업 요건	53

PART 5. Tech

① 유리기판	55
② 실리콘 포토닉스	56
③ CXL	57
④ 액침냉각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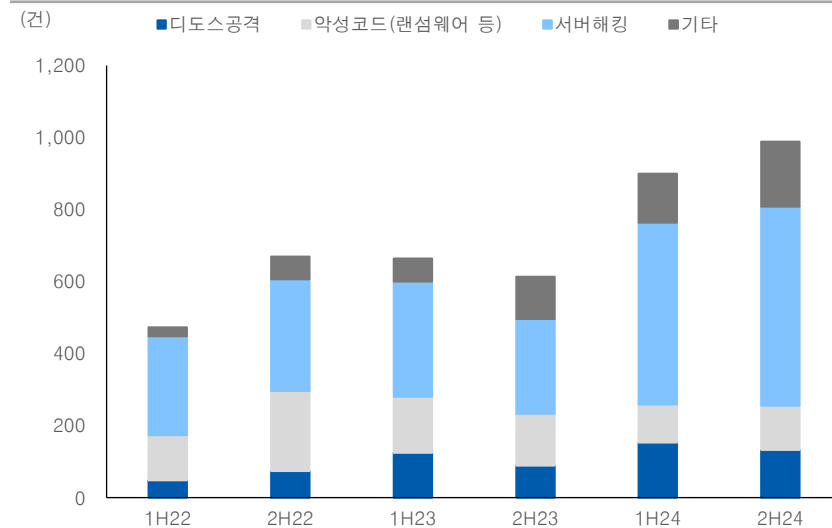


1. K-사이버 보안 2막이 열린다!

1. 국내 사이버 보안 범죄는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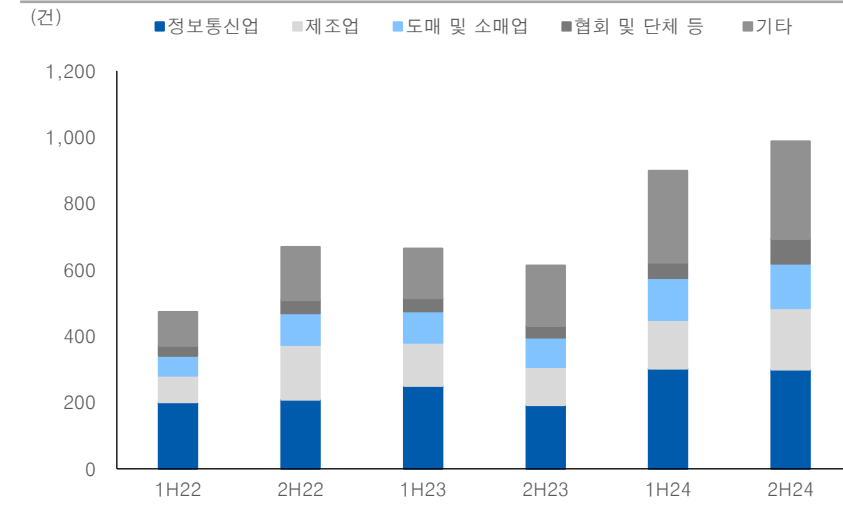
- 24년 국내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대비 +47.8%. 2023년 전년대비 증가율(+11.8%) 대비 30.0%p 높은 수치
- 24년 사이버 보안 침해 유형: 디도스공격(yoy +33.8%), 악성코드(-23.7%), 서버해킹(+81.3%), 기타(+74.6%)
서버해킹: 전체 침해사고의 절반이상(56.0%), 가장 높은 성장률
23년 침해유형: 디도스공격(+74.6%), 악성코드(-13.5%), 서버해킹(-0.3%), 기타(+105.7%)
→사이버 보안사고 유형 다양화
- 24년 업종별 침해사고 신고: 정보통신업(yoy +36.0%), 제조업(+35.9%), 도매 및 소매(+41.3%), 협회 및 단체(+71.8%)
2023년은 정보통신업(+8.1%), 제조업(0.0%), 도매 및 소매(+17.9%), 협회 및 단체(+4.3%)
→다양한 업종으로 침해사고 확산

[그림] 유형별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자료: KIS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업종별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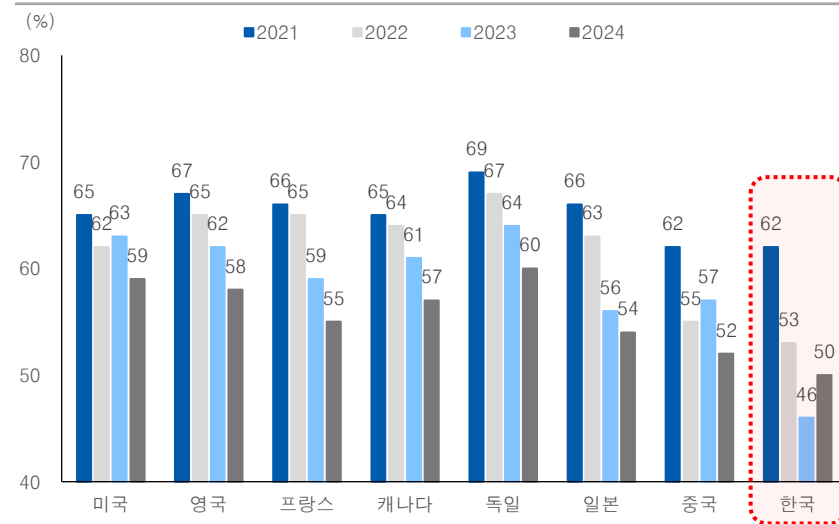


자료: KIS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사이버 보안 성장 저해요인 1)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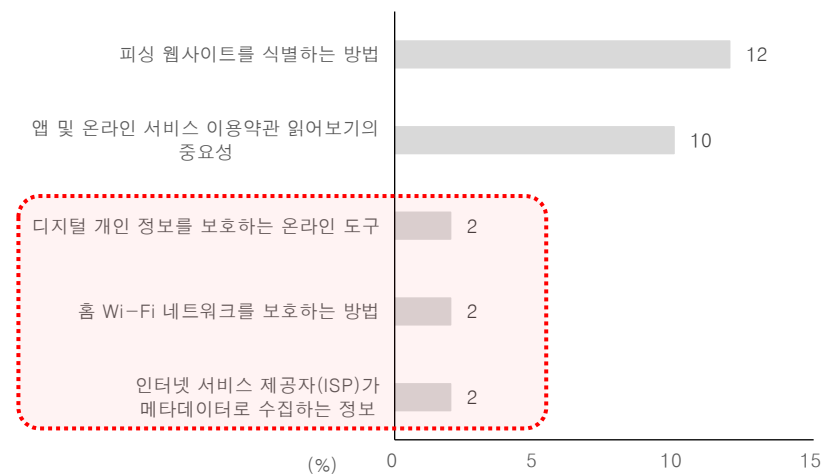
- 낮은 사이버 보안 인식
- 노드VPN의 사이버보안 인식테스트: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인식이 심각하다고 평가
24년 한국 50점(디지털 습관 50점, 위험수용성 45점, 개인정보보호인식 57점) VS. 평균 58점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대비 낮은 수치 & 중국보다도 낮은 점수
- 한국 참여자의 부족한 사항
업무에 AI를 활용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문제(정답비율 3%), 홈 Wi-Fi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법(정답비율 8%)
ISP가 메타데이터로 수집하는 정보(정답비율 10%)
→AI, Cloud, IoT 등이 관련된 보안인식 저조

[그림] 21~24년 국가별 사이버 보안인식 테스트 결과



자료: NP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한국 참여자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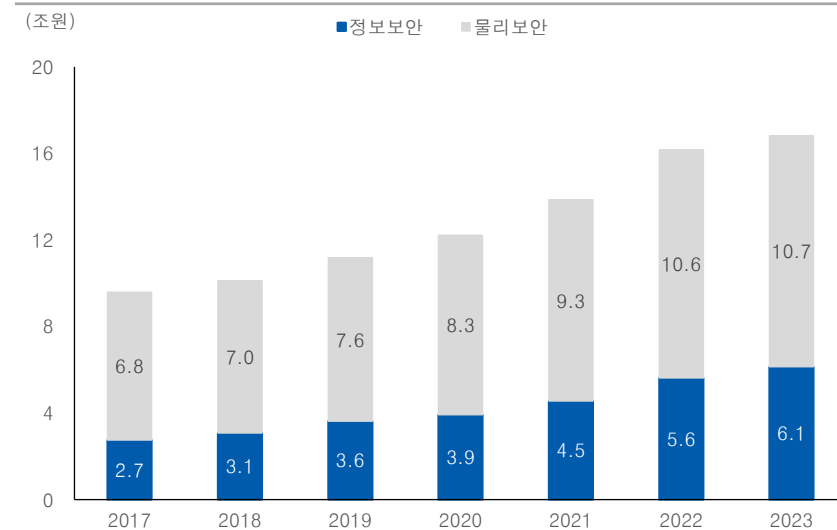


자료: NPT, 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사이버 보안 성장 저해요인 2)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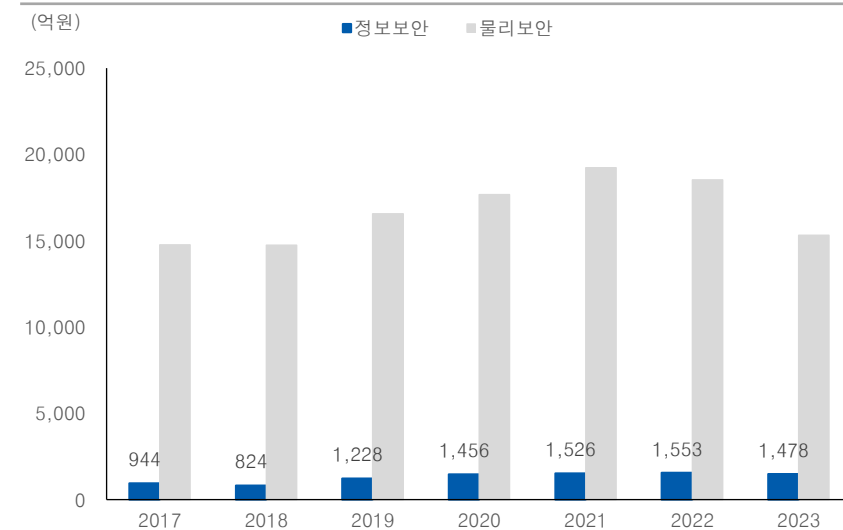
- 수출 역성장 = 낮은 글로벌 경쟁력
-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16.8조원(yoy +4.0%): 정보보안 6.1조원(yoy +9.4%)+물리보안 10.7조원(yoy +1.2%)
정보보안내 네트워크 보안(+19.5%) 성장 vs. 플랫폼보안(-2.6%), 콘텐츠/데이터(-7.9%), 공동인프라(-6.3%) 역성장 → Total solution에 취약
물리보안내 물리보안 주변장비(+19.5%), 출입통제 장비(+12.8%) vs. 보안장비 부품(-24.7%) → Value Chain 구축에 취약
- 국내 정보보호 산업 수출액 1.68조원으로 전년(2.0조원)대비 16.3% 역성장
정보보안 1,478억원(yoy -4.8%), 물리보안 1.53조원(-17.3%) 모두 역성장
- 외형성장을 위한 M&A도 저조

[그림] 한국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KI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한국 정보보호산업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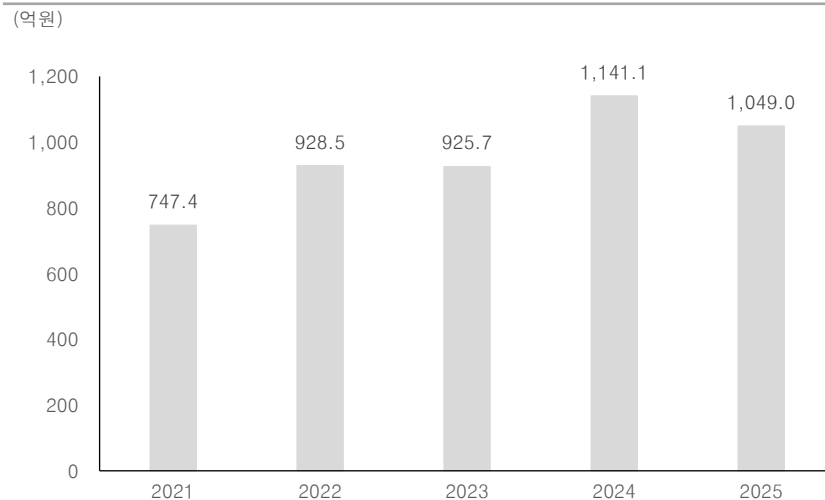


자료: KI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사이버 보안 성장 저해요인 3)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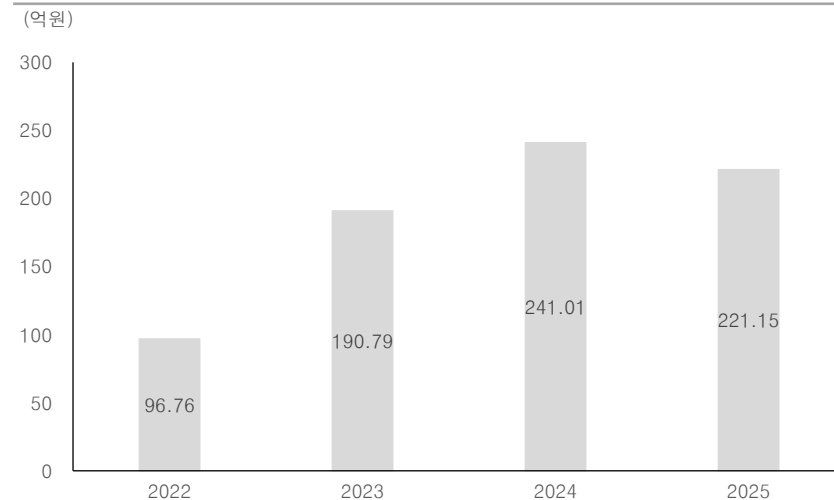
- 예산축소
- 과기부, 사이버위협과 관련된 R&D 예산 25년도 1,049억원으로 전년대비 8.1% 감소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 예산 24년 1,076억원 → 25년 993억원 7.7% 역성장
암호화 사이버 위협대응 기술개발 24년 20억원 → 25년 31.5억원으로 57.5% 증가(23년 30억원 대비 5% 증가에 불과)
- 과기부의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분석 및 2025년 전망]
24년 사이버 위협: 사이버 사기로 인한 피해, S/W공급망 공격 등 복합적 공격전술 사용, 랜섬웨어 공격기법 고도화 등을 제시
25년 사이버 위협: 생성형AI 활용 본격화, 디지털 융복합 체계 및 국제 환경변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 무차별 디도스 공격
→사이버 위협 다양화, 고도화,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축소

[그림] 한국 사이버 보안 예산 추이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



자료: KI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2025 K-사이버 보안 관심 증가 유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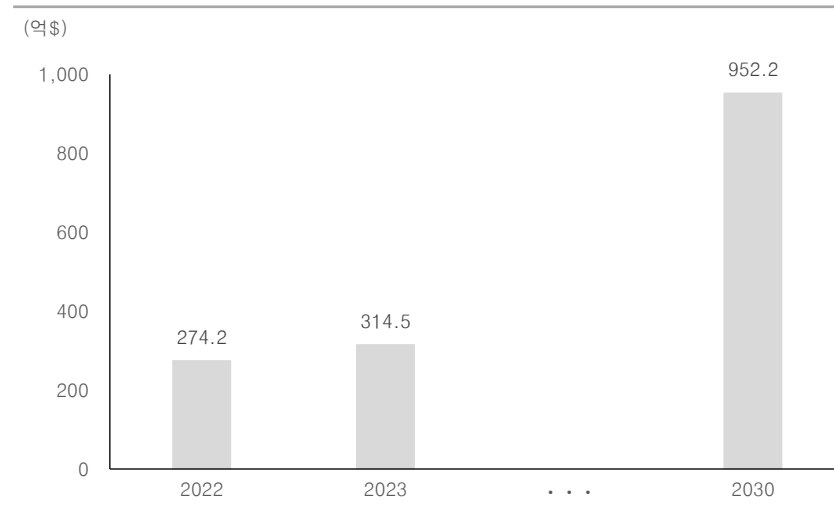
- 1) SKT 해킹 사건
 - 4/18일 사내 데이터 이상 움직임 발견 & 악성코드 발견 및 해킹 공격 사실 확인 → 4/19일 관련 분석 시작 & 고객 유심정보 유출 정황 발견
 - 4/20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4/22일 개인정보위원회 신고
- 2) 대선공약: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제시
 - 국가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범정부 차원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 사이버 안보 위협 공유 및 관리 체계 운영과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 법안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필요성 대두
- 3) 제로트러스트(ZT)의 높은 성장률 →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글로벌 ZT 시장 33년 1,444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연평균 성장률 16.9%)

[그림] SKT 해킹

일시	내용
4/18일 18:09	사내 데이터 이상 움직임 발견
4/18일 23:20	악성코드 발견 및 해킹 공격 사실 확인
4/19일 01:40	관련 분석 시작
4/19일 23:40	고객 유심 정보유출 정황 발견
4/20일 16:46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4/22일 10:00	개인정보위 정보 유출 정황 신고
4/23일 09:00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4/25일 11:00	전체 가입자 대상 유심 무료 교체 발표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ZT 시장규모: 연평균 17.1% 성장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1. SKT 해킹 이후-과기부

- 과기부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 1차 조사결과(4/29일): 서버 5대 감염, 악성코드 4종 발견 VS.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IMEI)은 없음
 - 2차 조사결과(5/19일): 서버 23대(18대 추가) 감염 &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포함 → 1차 대비 피해 확산
- 과기부 대응(1차 조사결과 이후)
 - 5/1일. SKT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유심 교체 등 추가 피해 방지 위해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 촉구
 - 5/8일. 제조&에너지&통신 등 국내 6,000곳에 SKT 서버에 발견된 악성 코드 등 확인 &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 요청
- 과기부 대응(2차 조사결과 이후)
 - 5/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국내기업/기관 보안투자 확대 방안 및 동반성장 방안 위한 간담회 개최

[그림] 조사결과 1차 vs. 2차

구분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감염 서버	5대	총 23대
악성코드	4종	총 25종
고유식별번호	유출 無	유출 有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과기부 지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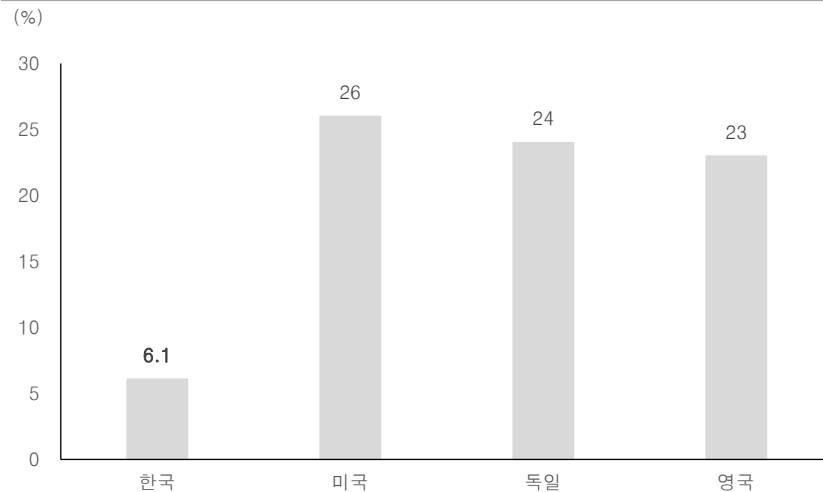
5/3일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통신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점검
5/8일	대상: 제조/에너지/통신 등 국내 6,000개 기업 권고1. SKT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가 각 사의 정보통신 설비에 참석 여부 확인 권고2.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
5/23일	국내 기업/기관 보안투자 확대 방안 및 동반성장 위 한 간담회 개최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1. SKT 해킹 이후-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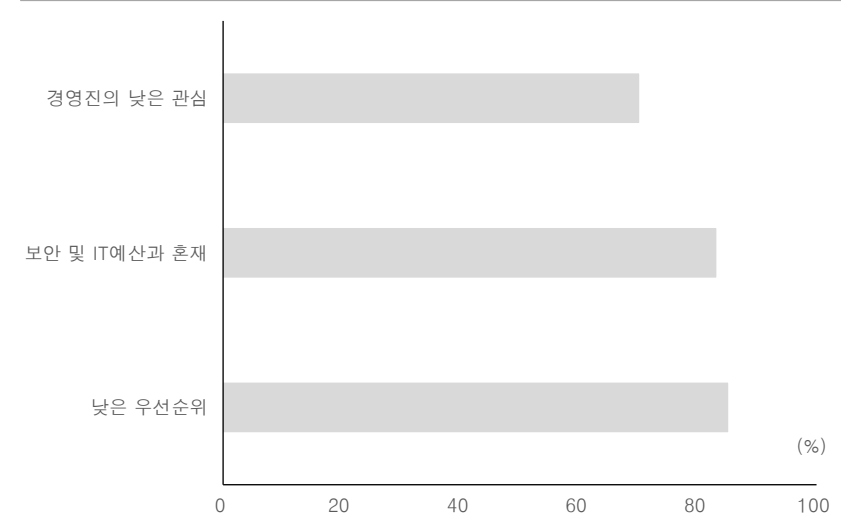
- 사후조치 위주의 체계로는 반복되는 유출 저지 어려움 → 개인정보 정책포럼 통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1)즉각적/기술적 조치사항, 2)상시적/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3)정보 주체의 권리구체 실질화
- 전체 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중: 한국 6.1% VS. 미국 26%, 독일 24%, 영국 23%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63%가 개인정보 보호예산 부족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운 이유: 낮은 우선순위 85%, 보안 및 IT 예산과 혼재 83%, 경영진의 낮은 관심 70%
- 제시한 추진 과제
공공/민간 등 쏠분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기준 구체화
정보보호 위한 핵심 보안 활동에 필요 투자 항목: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구축,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그림] 국가별 전체기술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국내 개인정보 보호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운 이유



자료: 개인정보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1. SKT 해킹 이후-입법조사처

[이동통신사 해킹 사건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By 입법조사처)

- 국내 통신 3사 모두 해킹사고 경험
 KT: 2012년 약 870만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용 요금제 등 가입자 정보 유출 & 2014년 약 1,200만명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유출
 LG유플러스: 2018년 3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유심정보 등 유출,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2023년에 발견
- 3가지의 개선 방안 제시
 1)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보보호 예산의 최소 투자비율 명시 필요
 2)인증제도 실효성 제고: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강화된 인증 기준 적용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검토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지정 범위 확대 & 지정 절차 강화

[그림] 모두 해킹당한 국내 통신3사

기업	시기	유출 규모
KT	2012년	약 870만명
	2014년	약 1,200만명
LGU+	2018년	약 30만명
SKT	2025년	약 2,700만명

자료: 언론보도, 입법조사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제시한 개선방안

1	정보보호 투자확대
2	인증제도 실효성 제고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검토 강화

자료: 입법조사처, 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2.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슈: M&A

- 25.3월 구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 인수(320억\$)
구글 인수 대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
- 24년 사이버보안 M&A 특징 1. M&A를 통한 외형 확대
-마임캐스트: 3개 인수
-포티넷/아르미스/프로텍트: 2개 인수
- 24년 사이버보안 M&A 특징 2. Big Deal
-24년 50억달러 상회하는 Mega Deal 3건 진행

[그림] 2022 사이버 보안 M&A(1억달러 이상)

월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인수대금
1월	구글	시엠플리파이	5억달러
2월	아카마이	라이노드	9억달러
2월	클라우드플레어	에어리어원시큐리티	1.6만달러
3월	구글	맨디언트	54억달러
3월	센티넬원	아티보네트웍스	6.2억달러
4월	토마브라보	세일포인트	69억달러
4월	시놉시스	화이트햇시큐리티	3.3억달러
8월	토마브라보	핑아이덴티티	24억달러
10월	토마브라보	포지룩	23억달러

자료: 보안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24 사이버 보안 M&A(1억달러 이상)

월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인수대금
1월	HPE	주니퍼네트웍스	140억달러
3월	클라우드스트라이크	플로우시큐리티	2억달러
3월	깃랩	옥스아이	3,000~4,000만달러
3월	지스케일러	아발러	3.5억달러
4월	아르미스	실크시큐리티	1.5억달러
4월	IBM	하시코프	64억달러
4월	토마브라보	다크트레이스	53.2억달러
9월	마스터카드	레코드퓨처	26억달러
10월	엑스페리안	클리어세일	3.5억달러
10월	소포스	시큐어웍스	8.6억달러
11월	위즈	대즈	4.5억달러

자료: 보안뉴스, 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2022년 사이버 보안 M&A

월	인수	피인수	인수대금	월	인수	피인수	인수대금
1월	구글	시애틀리파이	5억\$	6월	IBM	란도리	0.5~1억\$
1월	레코디드퓨처	시큐리티트레일즈	6,500만\$	6월	포스아웃	사이시브	
1월	디지서트	모카나		6월	에어버스	DSI	
2월	포스아웃	사이버MDX		6월	마이크로소프트	미부로	
2월	체크포인트	스펙트럴	6,000만\$	7월	레코디드퓨처	햇칭	
2월	클라우드플레이어	벡트릭스		7월	탈레스	원웹컴	1억\$
2월	시큐리티스코어카드	라이파즈		8월	토마브라보	핑아이덴티티	24억\$
2월	아카마이	라이노드	9억\$	9월	클라우드스트라이크	리포지파이	
2월	다크트레이스	사이버스프린트	5,370만\$	9월	후지쯔	인피섹	
2월	클라우드플레이어	에어리어원시큐리티	1.62억\$	10월	토마브라보	포지룩	23억\$
3월	구글	맨디언트	54억\$	10월	옵스왓	파일스캔	
3월	센티널원	아티보네트웍스	6.17억\$	11월	인텔471	스파이더풋	
3월	부즈앨런헤밀턴	에버왓치		11월	원패스워드	패시지	
3월	어베스트	시큐어리테크		11월	스플링크	트윈웨이브	
4월	프로톤메일	심플로그인		11월	팔로알토	사이더시큐리티	1.95억\$
4월	토마브라보	세일포인트	69억\$	11월	드롭박스	박스크립터	
4월	KPMG	포티카		12월	프루프포인트	일루시브	
4월	소포스	SOC.OS					
4월	테너블	비트디스커버리	4,450만\$				
4월	시놉시스	화이트햇시큐리티	3.3억\$				

자료: 보안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2024년 사이버 보안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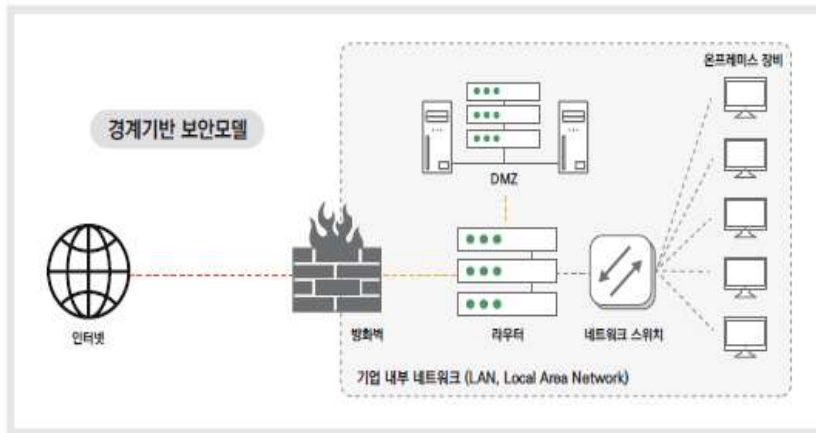
월	인수	피인수	인수대금	월	인수	피인수	인수대금
1월	5G네트웍스	시큐리티쉬프트	260만\$	6월	포티넷	레이크워크	
1월	HPE	주니퍼네트웍스	140억\$	6월	제이프로그	콕마	
1월	마임캐스트	엘러베이트시큐리티		6월	모질라	어노님	
1월	프로젝트AI	레이어마		6월	테너블	유레카시큐리티	
1월	센티넬원	핑세이프		7월	마임캐스트	코드42	
1월	소닉월	바난		7월	프로젝트AI	사이드랩스	
2월	원패스워드	콜라이드		7월	라피드	노티사이버	
2월	아르미스	CTCI		7월	쓰레트커넥트	폴라리티	
2월	델리니아	패스트패스		8월	체크포인트	사이버인트	2억\$
2월	F5	웍		8월	시스코	로보서트인텔리전스	
2월	리질리언스	브리치퀘스트		8월	디지털트	버카라	
3월	에어버스	인포다스		8월	포티넷	넥스트DLP	
3월	클라우드스트라이크	플로우시큐리티	2억\$	8월	마임캐스트	어웨어	
3월	클라우드플레이어	네펠리네트웍스		8월	옵스왓	인퀘스트	
3월	F5	헤이핵		9월	마스터카드	레코드퓨처	26억\$
3월	깃랩	옥스아이	3,000~4,000만\$	9월	팡고	카스퍼스키	
3월	지스케일러	아발러	3.5억\$	9월	세일즈포스	우온컴퍼니	
4월	아르미스	실크시큐리티	1.5억\$	9월	비자	피쳐스페이스	
4월	비온드트러스트	인타이틀		10월	클라우드플레이어	키베라	
4월	IBM	하시코프	64억\$	10월	드라고스	네트워크퍼셉서	
4월	노비포	이그레스		10월	엑스페리안	클리어세일	3.5억\$
4월	옵스왓	CIP사이버		10월	EY	디그나리	
4월	토마브라보	다크트레이스	53.2억\$	10월	프루프포인트	노멀라이즈	
4월	베라코드	롱보우시큐리티		10월	소포스	시큐어웍스	8.6억\$
5월	아카마이	노네임시큐리티	4.5억\$	11월	비트사이트	사이버식스길	
5월	보그크라우드	인포머		11월	클라우드사오라이크	어댑티브셴드	3억\$
5월	클라우드플레이어	바스티온제로		11월	사이버리즌	트러스트웨이브	
5월	사이버아크	베나피	15.4억\$	11월	멀웨어바이츠	어자이어VPN	
5월	팔로알토	IBM 큐리더더 사스		11월	위즈	대즈	4.5억\$

자료: 보안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3. 제로트러스트(Z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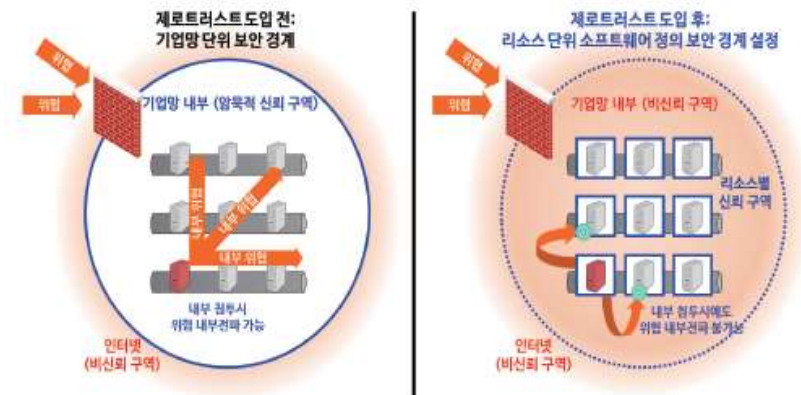
- ZT(Zero Trust) 정의: 기업망 내/외부에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어, 명확한 인증 과정 전까지는 모든 사용자/기기/네트워크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으며, 인증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
- 도입배경
 전통적 보안: 경계기반의 보안방식 채택 ← 기업들은 업무를 위한 기업망을 사용, 기업망과 외부망으로 구분 구조가 단순 & 명확
 모바일, IoT, Cloud 등의 확산으로 원격 채택 근무환경 조성 → 사용자 & 접촉 가능한 단말기와 장비 증가 →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대상 증가
 ⇒ 불확실성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개념 및 아이디어인 ZT 주목

[그림] 전통적 보안 모델 구성도



자료: Digital.co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기업망 단위 → 리소스 단위



자료: NIST(A.Kerman), KIT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3. 제로트러스트(ZT)

- 도입효과1. 사용자 자격증명 도용 방어

정당한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위조하여 기업 내 접근 시도

기존 기업망: 사용자의 자격 증명 위조만으로도 사내망 접근 가능 VS. ZT: 사용자 뿐 아니라 접속기기도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으로 지정

- 도입효과2. 원격 공격 혹은 내부자 위협 방어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 권한 상승 이후 횡적 이동을 통해 다양한 리소스에 접근 혹은 손상 가능

ZT: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관리 통해 횡적 이동 제한적 & 데이터 접근은 보안정책/사용자 역할/기기 속성 등에 따른 접근제어 세밀화

- 도입효과3. 공급망 침투 방어

기업망에 있는 기기나 응용 프로그램에 악성코드 삽입

기존: 접속에 대한 신뢰성 부여 이후 벌어지는 공격에 대한 대응 어려움 VS. ZT 데이터 접근 최소화 통해 피해 축소 및 최소화

[그림] ZT 도입시 발생 효과

접근방법	사용자 자격증명 도용	원격 공격 혹은 내부자 위협	공급망 침투
세부내용	▶일반적으로 사용자 자격 증명 위조시 기기와 관계없이 기업망 내부 리소스 접근 가능하여 피해 발생 ▶기업 외부 접속 시 강화된 다중 인증 등 인증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대응가능	▶네트워크에 접속, 권한 상승 후 횡적이동을 통해 다양한 리소스에 접근하거나 손상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음	▶해당 접속에 대해 신뢰성이 부여되어, 이후 벌어지는 대다수 공격에 대한 대응불가
ZT 모안 모델의 대응 시나리오	▶위장 기기인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정보에 대한 로그 및 모니터링 ▶정상적인 자격 증명 후에도 신뢰도 충분치 않은 이벤트 발생 시 강화된 다중 인증 적용을 통한 대응	▶네트워크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되어 관리, 공격자의 횡적 이동이 쉽지 않음 ▶데이터 접근은 보안 정책, 사용자 역할, 기기 속성 등에 따라 제한, 세밀한 접근제어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 접근 불가 ▶사용자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활동시 추가 인증 요구 혹은 동적인 접근 제한 가능	▶정상적인 기기 정상적으로 배포된 프로그램이어도 일단 신뢰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접근은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모든 네트워크 연결이 감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접속을 통한 공격 명령/통제 및 데이터 전송 역시 대응 가능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3. 제로트러스트(ZT)

-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14~15년, 2회)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 2,150만명의 전/현직 직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17개월간 조사후 채택한 보고서內 연방 정부에게 총 13가지 권고안 제시
이 중 2번째 권고안이 ZT 모델로의 이행의 촉구
- 18년 연방CIO위원회, 연방정부차원에서 ZT 도입 논의 위해 ZT/SDN Streeing Group 설립
19년 ZT 아키텍처 프로젝트 시작: 논리적 보안 모델 및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그림] 美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방법



3-3. 제로트러스트(ZT)

[참고사항] 미국내 ZT 관련 진행사항

시기	기관	미 연방정부 진행 사항
2019.04	ACT-IAC	제로트러스트 사이버 보안 동향 소개
2020.08	NIST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SP 800-207) 발간
2021.02	DISA/NSA	국방부 제로트러스트 참조 아키텍처 버전 1.0 발간
2021.02	NSA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수용 지침 발간
2021.05	바이든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E0-14028) 발표
2021.06	CISA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발간
2021.06	GSA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 구매자 가이드 발간
2021.07	NIST	행정명령 관련 주요 S/W에 대한 보안성 관련 지침 발표
2022.01	바이든	국가 안보, 국방부 및 정보 공동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각서 발표
2022.01	OMB	제로트러스트 사이버 보안 원칙을 향한 미 연방 전략에 관한 각서 발표
2022.02	NSTAC	'제로트러스트 및 신뢰할 수 있는 ID 관리' 대통령 보고서 발표
2022.03	CISA	엔트프라이즈 모빌리티에 제로트러스트 원칙 적용 발간
2022.05	NIST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계획: 연방 관리자를 위한 계획수립 지침 발간
2022.06	법무부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포함하는 2022-2024 회계연도를 위한 미국 법무부 정보기술 전략계획 발표
2022.07	DISA/NSA	국방부 제로트러스트 참조 아키텍처 버전 2.0 발표
2022.06~08	NIST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 발간
2022.11	DoD	국방부 제로트러스트 전략, 기능 실행 로드맵 발표
2022.12	NIST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 발간
2023.04	NSA	사용자 핵심요소를 통한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개선
2023.04	CISA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 발간

자료: H. Saleem et al,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조: ACT-IAC(미국기술산업 자문위원회),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DISA(국방정보체계국), NSA(국가안보국),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GSA(미국 조달청), OMB(미국 예산관리국), NSTAC(미국 국가안보통신자문위원회), DoD(미 국방부)

3-3. 제로트러스트(ZT)

- ZT 6가지의 기본 원리
 - 1)기본원칙-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한 신뢰하지 않을 것
 - 2)일관되고 중앙 집중적인 정책 관리 및 접근제어 결정
 - 3)사용자 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강력한 인증
 - 4)리소스 분류 및 관리를 통한 세밀한 접근제어(최소 권한 부여)
 - 5)논리 경계 생성 및 세션 단위 접근 허용
 - 6)모든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로그 및 이를 통한 신뢰성 지속적 검증 및 제어
- ZT 아키텍처 접근 방법
 - 1)인증체계 강화
 - 2)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 3)네트워크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 ZT 도입 위한 기업망의 6가지 핵심 요소
 - 1)Identity: 식별자/신원 확인. 다중 인증 기법을 도입하여 정교한 온라인 공격으로부터 사용자 보호
 - 2)Device/Endpoint: 업무용으로 인가되어 이는 모든 기기 목록을 관리. 자산 목록화와 전사적 기기 탐지 및 EDR솔루션 전사적 도입
 - 3)Network: 기업내 망에서 DNS, HTTP 트래픽 암호화, 보안 경계를 격리된 환경으로 분할
 - 4)System: 주요 파일 접근제어, 주요 사용 명령어 통제, 영역별 접근제어 등 통제. 단순 ID/PW가 아닌 PKI, OTP, FIDO 등이 연동가능한 방식으로 지속
 - 5)Application & Workload: 응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엄격히 심사
 - 6)Data: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및 도구 활용해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분류/보호하고 전사적 로깅 및 정보 공유 구현

3-3. 제로트러스트(ZT): 국내

- K-ZT

ZT 가이드라인 1.0 발표(23.7월), ZT 가이드라인 2.0 발표(24.12월)

ZT 가이드라인 2.0: 성숙도 모델의 추상성 극복, 실질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 세부역량의 성숙도 수준별 특징 정의

- 실증 및 시범사업

23년 주관기업: SGA솔루션즈, 프라이빗테크놀러지

24년 주관기업: SGA솔루션즈, 지니언스, 엠진, 엠씨큐어

25년 주관기업: SGA솔루션즈, 파이리빗테크놀러지, 이니텍, SK쉴더스, 이스트시큐리티

[그림] 23년 2개 프로젝트, 20억 예산 / 24년 4개 프로젝트, 예산 45억원

2023년 선정과제명	기업
다양한 업무환경에 적용 가능한 ZT 보안 모델 구현 및 실증	주관: SGA솔루션즈 참여: 에스지앤, 소프트캠프, 지니언스
ZT 보안 모델에 대한 보안성/분석 평가	주관: 프라이빗테크놀로지 참여: 타이거컴퍼니
2024년 선정과제명	기업
정부/공공기관 통합 전산센터 대상 ZT 적용	주관: SGA솔루션즈 참여: 케이사인, 엔키화이트햇
해외지사 등 원격접속이 잦은 환경에서 ZT 구현	주관: 지니언스 참여: 수산아이앤티, 퓨처택정보통신
일반 사무환경이 아닌 외부고객/특수 단말 접속이 많은 환경에 적용	주관: 엠진 참여: 옥타코, 지란지교에스앤씨, 엔드포인트랩
금융분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업무환경에 ZT 보안모형 구현	주관: 엠씨큐어 참여: 엠엘소프트, 피애피씨큐어, SNA, 이스툼

자료: 보안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25 ZT 시범사업: 6개 프로젝트, 예산 52억원

2025년 선정과제명	기업
금융 부문 모바일 개발환경 ZT 보안모델 도입사업	주관: SGA솔루션즈 참여: 앤앤에스피, 에스에스알
데이터 중심의 ZT 오버레이 금융망 구축	주관: 프라이빗테크놀로지 참여: 아이티센피엔에스, 소프트버스, 파이오링크
AI 클라우드 인프라 보호를 위한 ZT 시범사업	주관: 이니텍 참여: 아스트론, 시큐리티, 피애피씨큐어, 큐비트 시큐리티
SaaS 환경 저변 확대에 따른 ZT 기반의 보안 실증사업	주관: SK쉴더스 참여: 넷츠, 모놀리, 자이온, 소프트캠프
보안 서비스 예지(SSE) 플랫폼 기반 ZT 보안 모델 실증	주관: 모니터랩 참여: 안랩, 라온시큐어, LG유플러스
ZT 기반 범용 인증(클라우드 및 특수망)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주관: 이스트시큐리티 참여: 시큐어링크, 사이시큐연구소, 옥타코

자료: 보안뉴스, 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3. 제로트러스트(ZT): 국내

• K-ZT 성숙도 모델 2.0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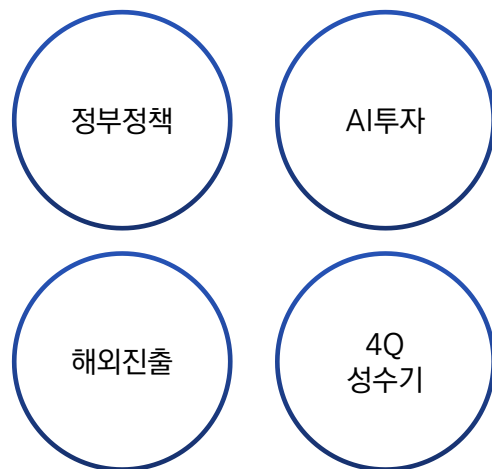
구분	기존(Traditional)	초기(Initial)	향상(Advanced)	최적화(Optimal)
식별자/신원	-온프레미스ID 사용 -패스워드 혹은 다중인증 방식 -수동접근 및 자격증명 관리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기반 ID 연계 -다중인증 및 FIDO 기반인증 -수동 및 정적 규칙 기반 위험판단	-컨텍스트 기반 ID 인증 -일부 자동화된 및 동적 규칙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 -세션 기반 접근 지원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글로벌 ID -AI 기반 위험도 결정 및 지속적 보호 -자동화된 적시/최소 권한 접근 적용
기기 및 엔드포인트	-제한된 정책준수정보 -단순하고 수동적 기기 목록 관리 -수동적위협보호 기능 적용	-대부분의 기기에 정책 준수 시행 -매커니즘 사용 -모든 기기에 대해 목록화 -기기 보안솔루션 자동관리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 -검증된 기기만 데이터 접근 -자동화, 중앙집중식 위협 보호 및 자산관리 기능 통합	-지속적 기기 보안상태 모니터링 및 검증 -모든 환경에 걸쳐 자산 및 취약점 관리 통합 -모든 기기에 대해 위협 보호
네트워크	-경계분리 네트워크 구조 정의 -알려진 위협 및 정적 트래픽 필터링 -매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에 대한 기능 회복	-소규모 경계를 통해 확장된 네트워크 구조 정의 -내부 애플리케이션 모든 트래픽 및 외부 일부 트래픽 암호화 -위험성이 없는 워크로드에 대한 탄력적인 네트워크 회복	-마이크론 세그먼트를 통해 엔드포인트 및 애플리케이션 격리매커니즘 배포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격리 및 제거 -자동화된 위험인식 기반 동적 네트워크 규칙 생성	-컨텍스트 기반 및 기계학습 기반 위협보호 통합 -암호화 민첩성 -우선 순위 지정 가능한 동적 네트워크 규칙 생성
시스템	-로컬 시스템 기반 ID/PW 등 단순인증 -정적 속성 등 최소한의 권한 분리 정책 적용 -온프레미스 시스템보안 패치 및 정책 수동 변경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계정 관리 -일부 중요도에 따르는 네트워크 세분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패치 수준 자동 확인 가능	-동적 접근 권한 통제 -등급 및 기능별 네트워크 분류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된 보안패치	-다중인증 및 신뢰도 기반 접근 인가 -세분화된 리소스별 접근 정책 적용 -온프레미스&클라우드상의 모든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된 보안패치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로컬인가 및 정적 속성 기반 애플리케이션 접근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와 위협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통합 -정적/수동테스트 수행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와 위협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통합 -CI/CD 파이프라인 DevSecOps, SBOM 적용 -동적 테스트 방법 사용	-확장된 컨텍스트 정보 및 최소권한 원칙의 애플리케이션 접근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와 위협 보호에 대한 강력한 통합 -장기적/자동화된 테스트	-실시간 위협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인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및 단말 직접 접근 가능 -자동화된 코드 배포 및 S/W 검증
데이터	-정적, 수동 데이터 분류 및 접근제어 -온프레미스 및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 -제한된 임시 데이터 분류	-일부 자동화된 추적 기반 수동데이터 분류 및 목록화 -최소한의 권한 요소를 통합한 데이터 접근 -정적 레이블 및 수동 매커니즘 데이터 분류	-속성에 기반한 최소 권한 제어기법으로 접근관리 -저장소의 모든 데이터 암호화 -레이블 지정 프로세스 계층화 및 데이터 목록화 자동화	-AI를 이용한 지속적인 데이터 분류 및 목록화 자동화 -적시/최소권한 동적 데이터 접근 -사용중인 데이터 암호화 및 최선 암호화 적용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하반기 K-사이버 보안 기업 관심 확대 전망

- 2H25 K-사이버 보안 관련 예상 EVENT
 정부: 사이버 보안 관련 권고 이상의 정책 제시 기대
 산업: AI 산업 투자 관심 확대 →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 상향 기대
 기업: SKT 사태 이후 보안에 대한 관심 증가 → 하반기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전망
- 해외진출: 기업-정부 협동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으로 K-사이버 보안 진출 확대 추진 중
- 사이버 보안 B2G Biz 사업 비중 높아 4분기 성수기
- 관련기업: 접근제어(지니언스), 생체인증(슈프리마), 사전예방(라온시큐어)

[그림] 2025년 하반기 K-사이버 보안 Event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주목해야 할 K-사이버 보안 Concept

접근제어	NAC	지니언스
	EDR	지니언스/안랩
다중인증	생체인증(FIDO)	라온시큐어
	지문/안면인식	슈프리마
사전예방	모의해킹	라온시큐어
		싸이버원

자료: 보안뉴스, 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NAC(네트워크 접근제어, Network Access Control),
 EDR(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솔루션,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2. K-체외진단

글로벌 Top Tier와 Win-Win

1. 체외진단

- 체외진단(IVD, In Vitro Diagnostic):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조직/혈액/침/소변/세포 세척액 등 인체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여 몸 밖에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예측/모니터링 하는 기술
- 체외진단의료기기: 식약처에서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신약, 대조/보정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의 의료기기
- 체외진단 종류: 중앙집중식 테스트, 주변기기테스트, 분산테스트로 구분

[그림] 체외진단의 종류

중앙집중식 테스트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	암 마커, 감염성 질환, 갑상선 기능, 빈혈, 알레르기, 임신, 약물남용 등
	혈액학	백혈병, 빈혈, 자가면역질환 등
	지혈	암
	유통세포 분석	유통세포 분석
	분자진단	면역결핍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암유전자, 유전질환 검사 등
주변기기 테스트	조직진단	감염
	임상 미생물학	감염
	소변검사	소변검사
분산 테스트	현장진단	혈액가스 검사, 심근경색 검사, 혈액응고 검사 등
	자가 모니터링 혈당테스트	당뇨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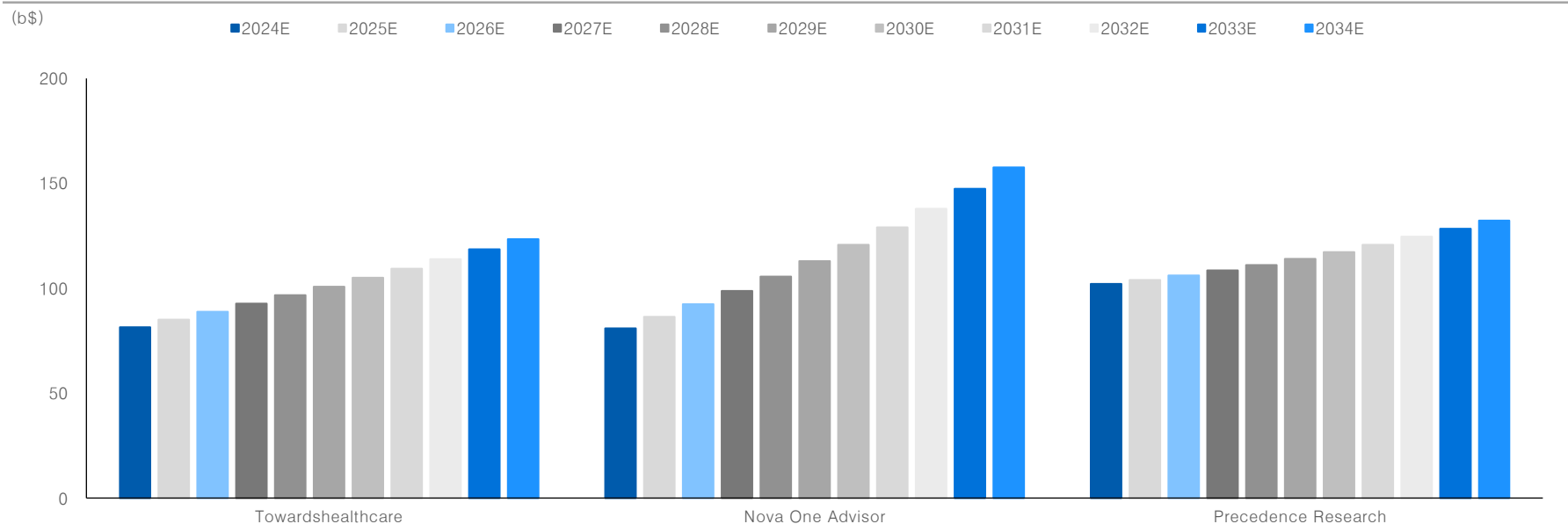
자료: Frost&Sulliva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체외진단 시장 전망

- 체외진단 시장 전망: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점진적인 성장(연평균 2.6~4.2%) 예상
 Towardshealthcare: 2024년 814.7억\$ → 2034년 1,234.5억\$(연평균 +4.2%)
 Nova One Advisor: 2024년 808.5억\$ → 2034년 1,575.6억\$(연평균 +3.4%)
 Market and Markets: 2024년 1,020.5억\$ → 2034년 1,321.8억\$(연평균 +2.6%)
- 체외진단 시장은 시약 및 키트, 장비(기기), SW & Service로 구분
 시약 및 키트: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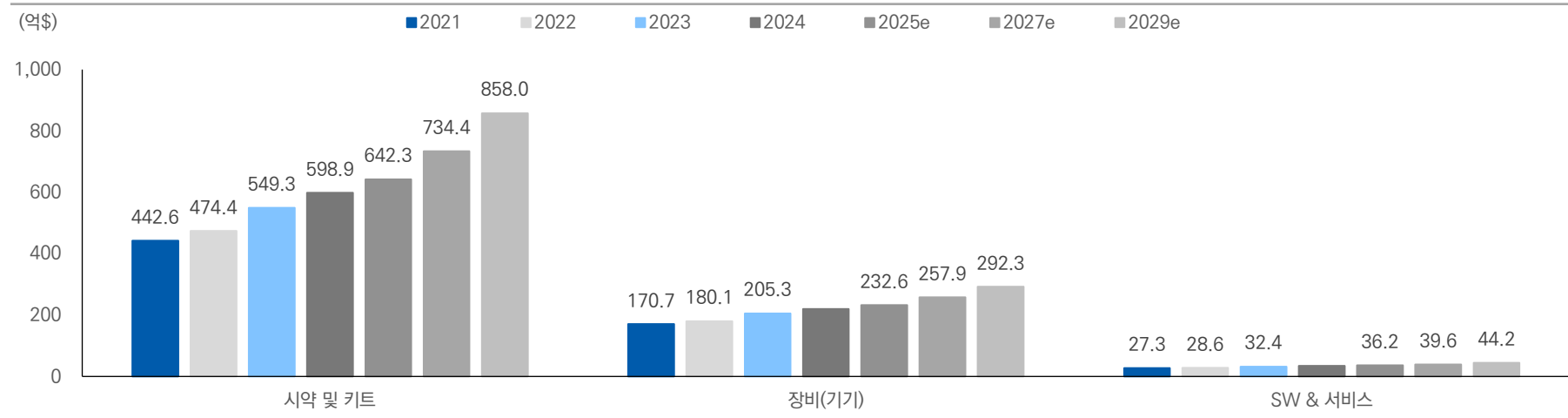
→ 면역&분자진단, 진단키트 중심의 점진적인 성장 기대

[그림] 체외진단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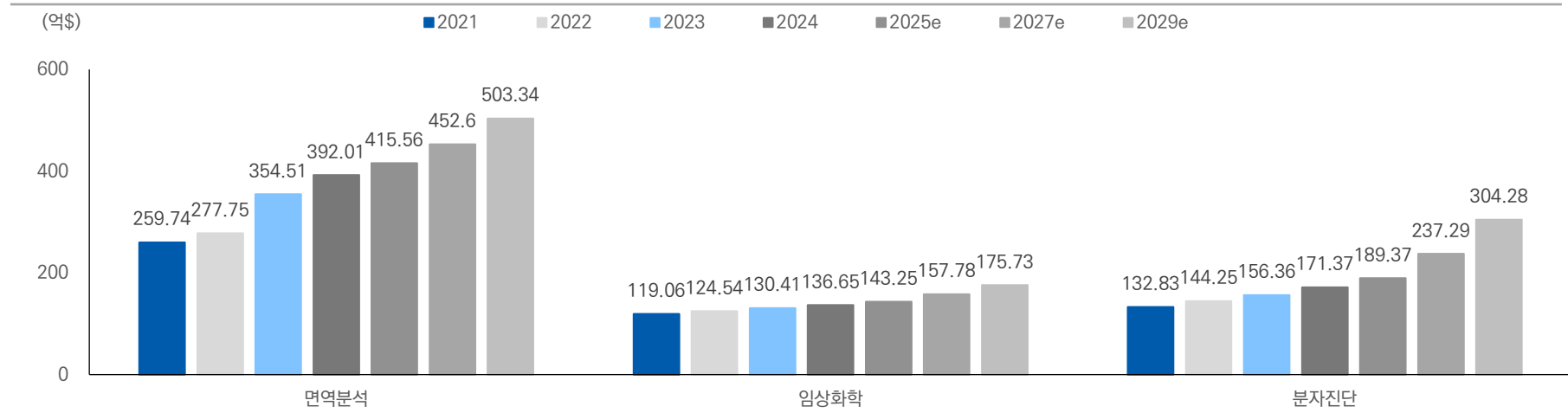
자료: IVD markets, global forecast to 2029, market and markets,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체외진단 부문별 시장 규모



자료: IVD markets, global forecast to 2029, market and markets,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체외진단 주요 분석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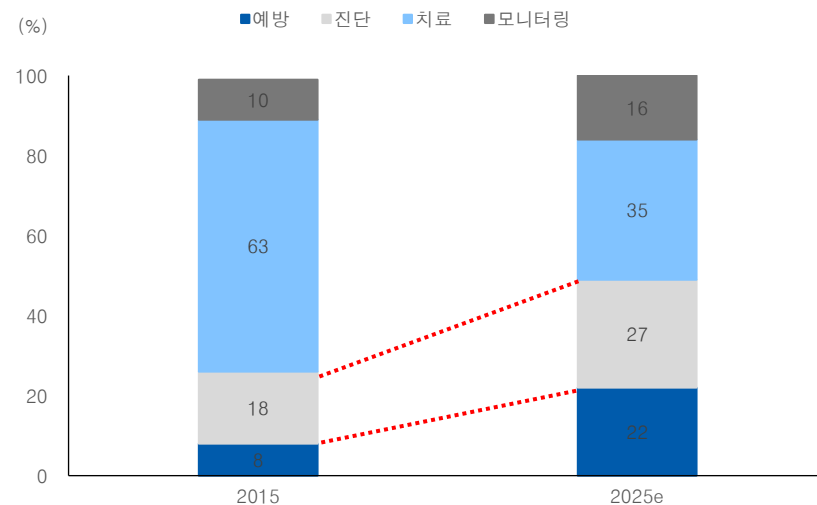


자료: IVD markets, global forecast to 2029, market and markets,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1)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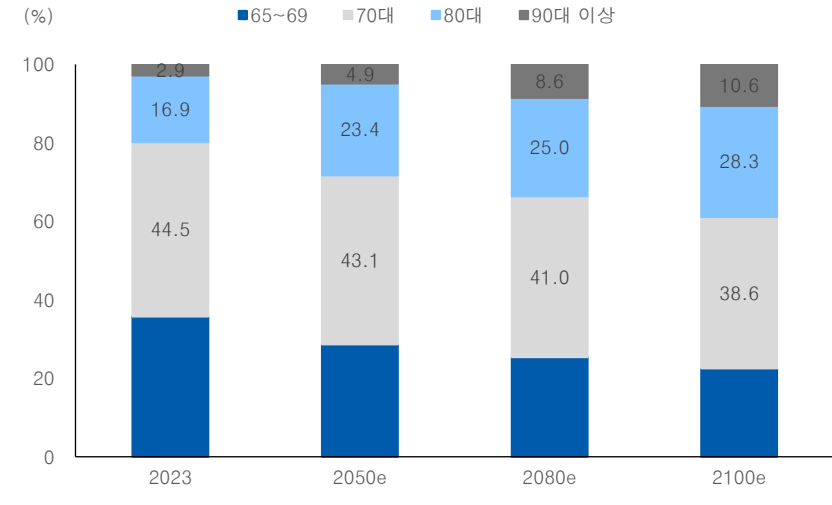
- 진단의 패러다임 변화: 치료에서 예방으로
과거-질병 발생시 치료를 위한 준비 VS. 현재-건강 이상을 확인하는 예방 수단
- 예방시 필요한 이유-고령화
 - 1) 정부: 의료 및 의료관련 복지비용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2) 개인: Well Aging을 위한 건강 관리
- 전세계 인구 고령화사회에 진입, 2039년 고령사회, 2070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세계 중위연령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로 증가 & 평균 기대수명 2023년 73.2세 → 2100년 81.7세
2100년 전체 고령인구 중 80대 이상의 인구 비중 2023년 19.8% → 2100년 38.9%(19.1%p 상승)

[그림] 글로벌 헬스케어 영역별 비중: 진단의 중요성 상향 전망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체외진단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2020)),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글로벌 기준 65세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비중: 80세 이상 증가추세 확인



자료: U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2)만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수 & 비중 확대

만성질환: 의학적 치료가 필요 혹은 장기간 발병해 계속 재발하는 질환 →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필요 → 체외진단 시장 성장

- 만성질환자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만성질환자, 10명중 4명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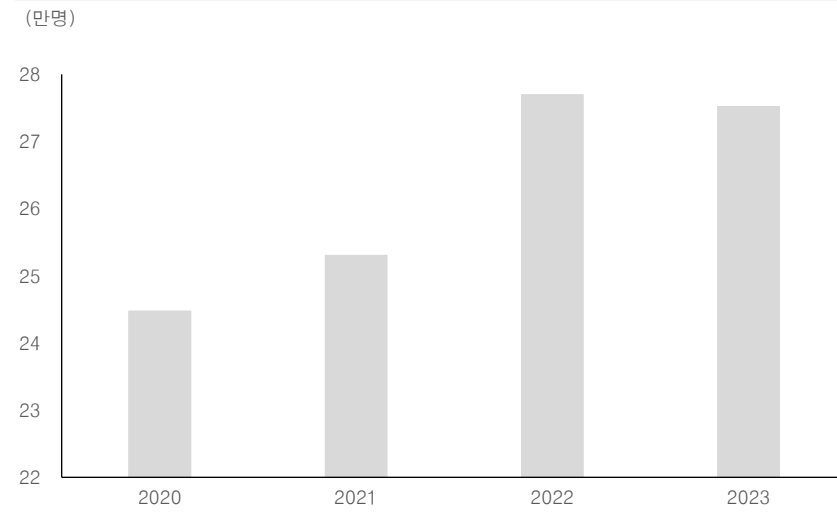
2022년 미국 성인 11%(2,930만명)이 3개 이상의 만성 질환 보유

-WHO, 만성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사망원인(70%)으로 매년 4,000만명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국내 질병관리청, 2023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의 78.1%(27.5만명) &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4.5%(9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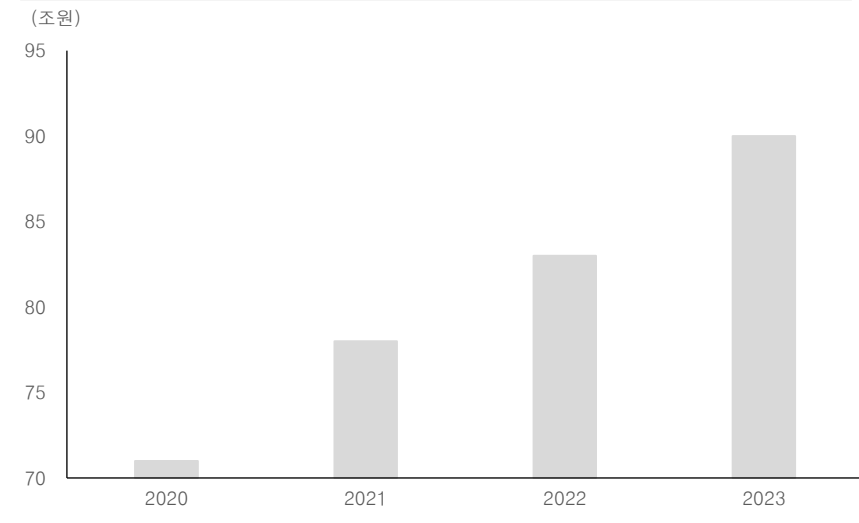
2023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상위 10개 항목 중 6개(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그림] 연도별 국내 만성질환 사망자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연도별 국내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3)가성비

- 비용 효과

WHO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약 60~70%를 차지 VS. 전체 의료비용 중 2%만 사용
즉, 진단검사에 대한 투자를 1% 상향시킬 경우, 전체 보건의료에 5% 절감 가능 → 효과적

- 적용범위 확대 & 원격진료

암: 기존 직접 종양을 떼어내 암을 진단하는 조직검사 VS. 액체생검(체외진단)

알츠하이머: 기존 PET 검사 VS. 뇌척수액 검사(체외진단)

[그림] 아날로그 병리 VS. 디지털병리 진단 흐름도



자료: 메디컬타임즈-아날로그에 고립된 병리와 탈출구는 디지털병리(2019.11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K-체외진단 주목이 필요한 이유 1)글로벌 경쟁 심화

- 체외진단 글로벌 Top Tier 경쟁 심화 추세: Covid 팬데믹 시기 수익창출 → 리오프닝 이후 M&A와 R&D를 통해 체외진단 라인업 확대 → 가격경쟁 심화
 Roche: 진단검사, 면역분석, 분자진단, 병리진단, PoC진단, 당뇨 등 / Abbott: 면역분석, 임상화학, 분자진단, 혈액학 등 다양한 라인업 보유
 Danaher: 면역분석, 임상화학, 분자진단, 혈액학, 지혈&응고, 요진단 등 / Siemens: 면역분석, 임상화학, 지혈, 감염병 진단 제품
 Thermo Fisher: 분자진단, 혈액학, 미생물학, 지혈&응고, 요진단 등
- 유럽 규제강화 → 글로벌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 or 협업 확대로의 전환 必

[그림] 아날로그 병리 VS. 디지털병리 진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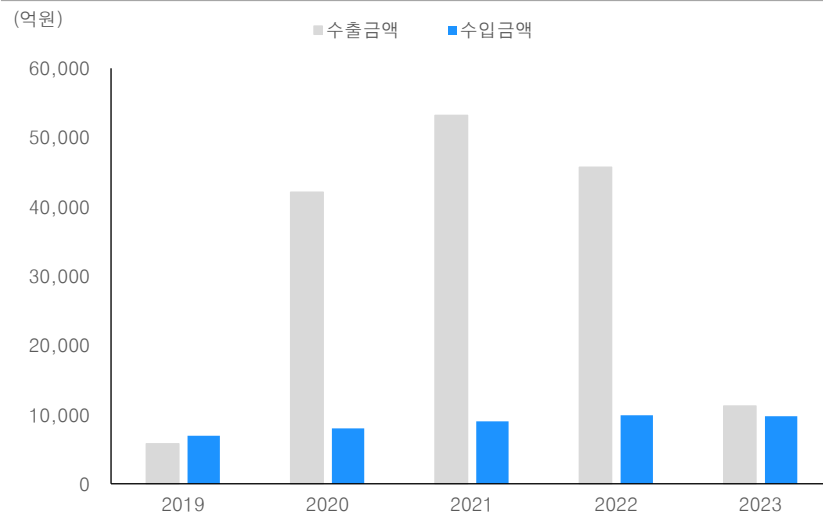
	Roche	Abott	Danaher	Siemens	Thermo Fisher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					
혈액학					
지혈					
유통세포 분석					
분자진단					
조직진단					
임상 미생물학					
소변검사					
현장진단					
자가 모니터링 혈당테스트					

자료: KHIDI(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전망),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K-체외진단 주목이 필요한 이유 2)경쟁력

- COVID 엔데믹 시기에서 확인된 기술 경쟁력 및 레퍼런스
- 글로벌 진출 가능성
수출액-19년 5,813억원→21년 5조 3,200억원 VS. 수입액: 19년 6,956억원→2021년 9,011억원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
- FDA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 Event에 대한 빠른 대응능력 확인

[그림]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추이



자료: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공,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FDA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유전자		항원
오상헬스케어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엑세스바이오
에스디바이오센서	옵토레인	셀트리온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항체
젠큐릭스	진매터릭스	
엑세스바이오	바이오코아	엑세스바이오
바이오세움	소마젠	수젠텍
씨젠	렙지노믹스	나노엔텍

자료: FDA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K-체외진단 주목이 필요한 이유 3)정부지원

-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암/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정밀 분석 기술 개발 → 검체 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해외 질병 검체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평가 지원

국가 주도 성능센터 구축 , 제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그림] 의료기기사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12대 중점 추진 과제

연구개발	임상실증	시장진출	제도/혁신 생태계
선택과 집중 통한 R&D 투자 확대	혁신의료기술 의료 현장 임상실증 연구 활성화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	혁신적 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 촉진
유망기술 신기술 투자	디지털헬스 신기술 실증데이터 구축 지원	의료기기산업 시장진출 종합지원 고도화	도전적 산업생태계 조성
초고령화 대응 및 보건안보 확립	체외진단 분야 임상지원 및 품질 향상 기반 마련	투자유치 및 금융지원 사업화 강화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5. 글로벌 Top Tier와의 협력 = Win-Win 전략

- 글로벌 체외진단 Top Tier 기업
 - 글로벌 인지도 및 풍부한 자금력 보유
 - 기업간 경쟁심화 확대 → M/S 확대를 위한 방안 필요한 시점
- 국내 체외진단 기업
 - Covid 펜데믹 시기를 통해 대응능력 및 해외진출 가능성 확인
 - 반면 해외 직진출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
 - 글로벌 체외진단 Top Tier 기업과 K-체외진단 기업들과의 협력(ODM/OEM)을 통해 상호보완
- 관련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 바디텍메드(206640)

[그림] 상호 보완 가능 및 확대 기대

	글로벌 체외진단 Top Tier	K-체외진단
경쟁력	글로벌 Brand 인지도	가격경쟁력
	자금력	대응속도
보안점	경쟁심화 현상 → 가격경쟁력	북미 해외진출시 多 비용 필요
	체외진단 라인업 확대	제한된 영역에 집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의 사업영역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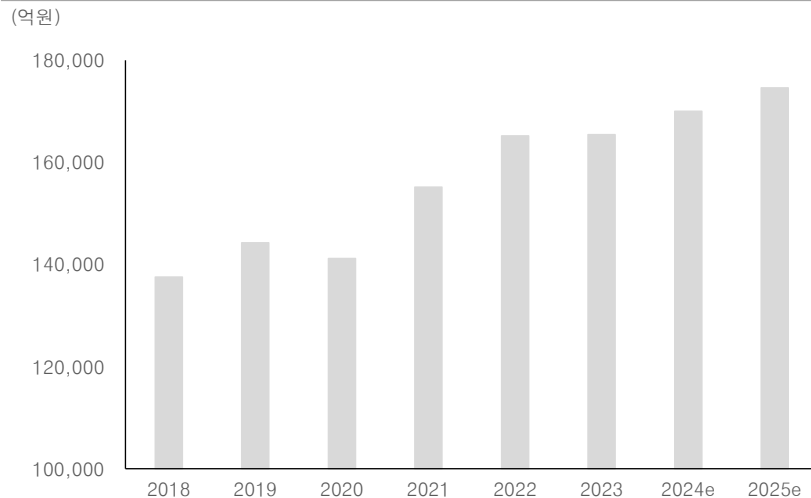
3. Media Lab

하반기 주목받을 OTT 미디어랩사

1. 광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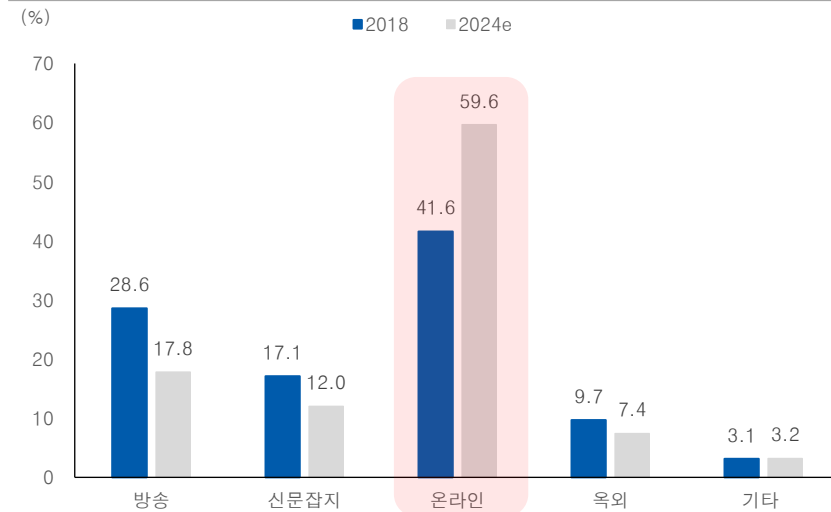
- 광고: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인 의사전달 형태
광고산업: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대행사, 매체사 간의 거래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광고의 집합
- 2024년 VS. 2018년
총 광고비 24년 17.0조원 VS. 2018년 13.8조원
온라인 광고 M/S 증가(18년 41.6%→24년 59.6%) VS. 방송(28.6%→17.8%), 신문잡지(17.1%→12.0%), 옥외(9.7%→7.3%) 감소

[그림] 국내 광고산업 총 광고비 추이



자료: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광고산업 항목별 비중 (2018년 VS. 2024년)



자료: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광고산업

- 광고취급액(By 문체부): 온라인광고대행업 M/S & 연평균 성장률 동반 개선

광고대행업: 17년 6.41조원(M/S 39.0%) → 23년 7.45조원(38.4% ↓)으로 연평균 +2.5%

광고제작업: 17년 2.01조원(12.2%) → 23년 1.51조원(7.8% ↓)으로 연평균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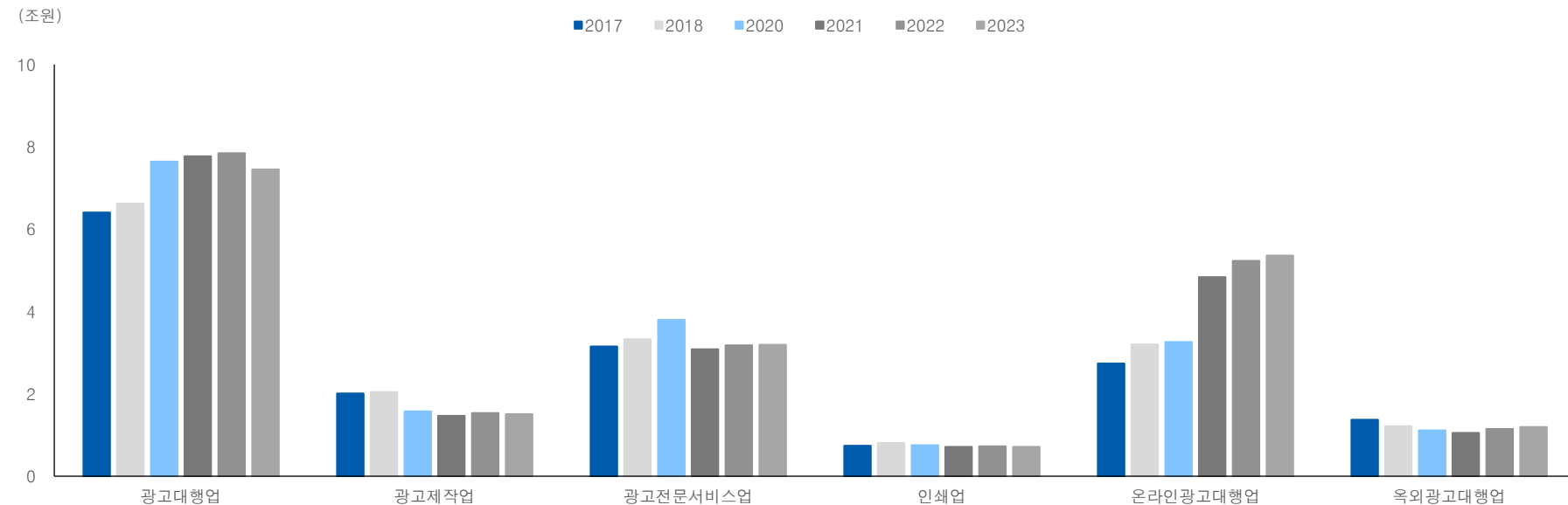
광고전문서비스업: 2017년 3.15조원(19.2%) → 2023년 3.19조원(16.4% ↓)으로 연평균 +0.2%

인쇄업: 2017년 7,374억원(4.5%) → 2023년 7,143억원(3.7% ↓)으로 연평균 -0.5%

온라인광고대행업: 2017년 2.73조원(16.7%) → 2023년 5.36조원(27.6% ↑)으로 연평균 +11.9%

옥외광고대행업: 2017년 1.37조원(8.4%) → 2023년 1.19조원(6.1% ↓)으로 연평균 -2.3%

[그림] 연도별 광고업종별 취급액 추이



자료: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광고산업 영향 요인

- 경제성장률

2018~2024년 명목GDP 성장률(4.1%)과 유사한 총광고비 성장률(3.6%)

2022년 이전 명목GDP 성장률 < 총광고비 성장률 VS. 2023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 > 총광고비 성장률

2025년 낮은 경제성장률 → 광고산업 역시 저조한 성장률 혹은 역성장 예상 ⇒ 가성비/타겟팅 마케팅에 집중

-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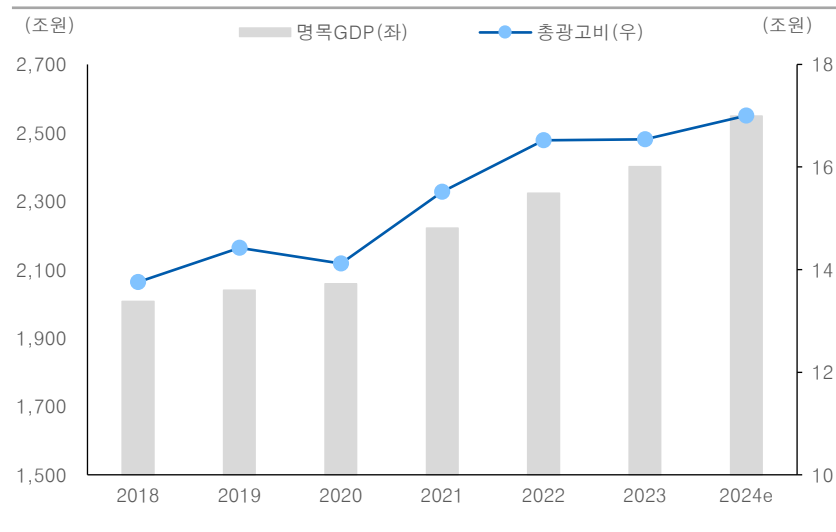
산업내 기업들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잠재적인 시장진입이 용이할수록, 매출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광고 투자 확대

국내 주요산업(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은 국내외 경쟁 치열

소비재(음식료, 화장품, 의류 등)은 잠재적인 시장진입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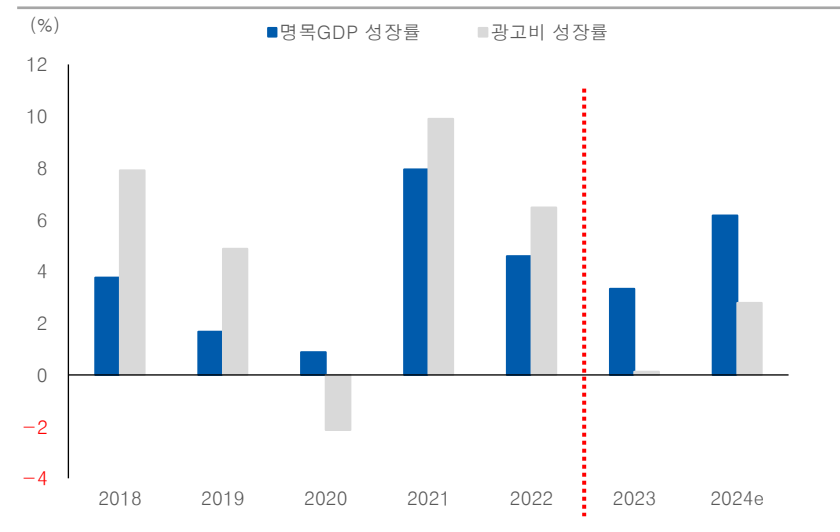
- 정치적 이벤트는 광고산업에 부정적 요인 → 하반기 이후 광고시장 회복 기대

[그림] 연도별 GDP VS. 총광고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명목 GDP 성장률 VS. 광고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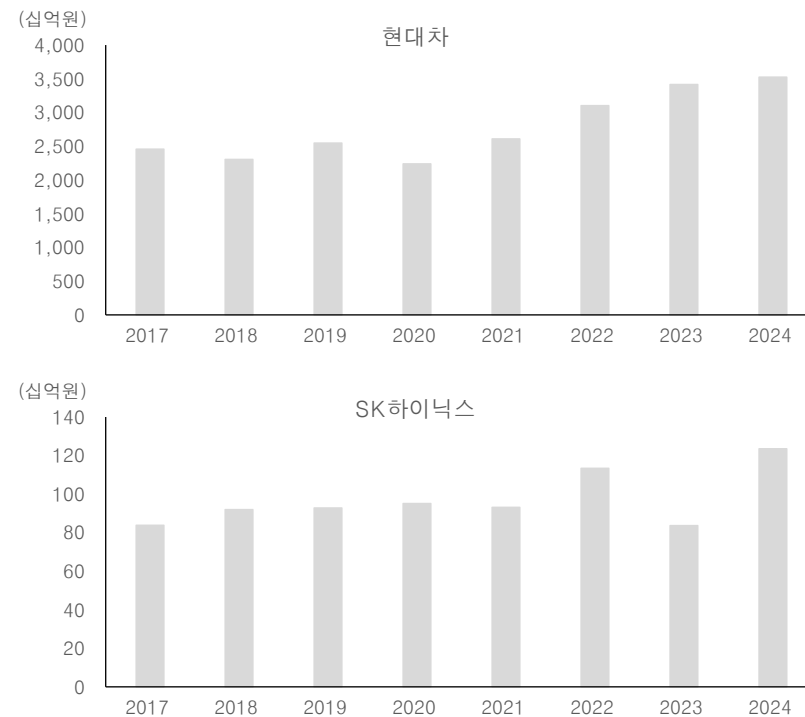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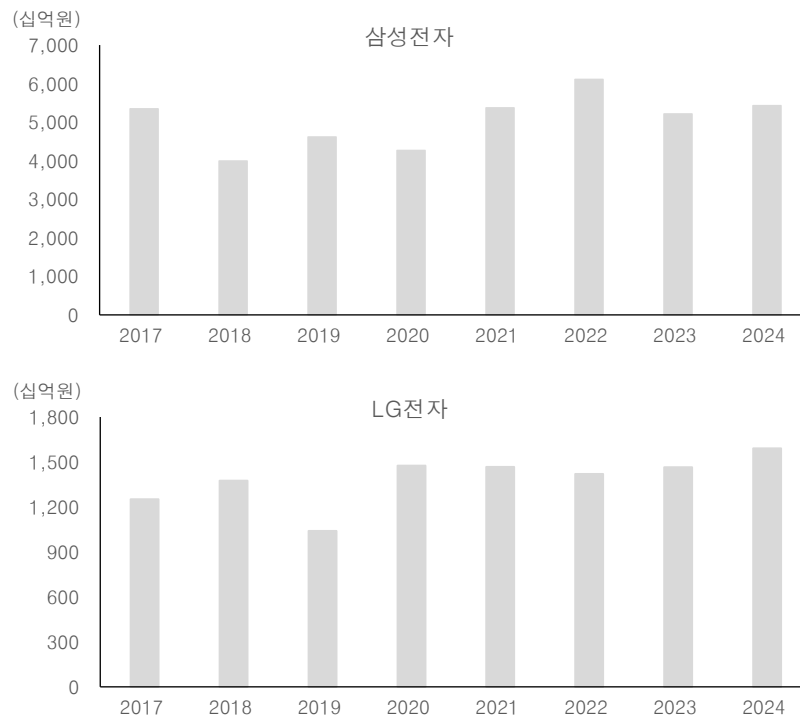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선전비

- 국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의 2017~2024년 광고선전비
연평균 성장률: SK하이닉스(+5.7%) > 현대차(+5.3%) > LG전자(+3.5%) > 삼성전자(+0.2%)
2024년 광고선전비 기준: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SK하이닉스 순서
가장 많은 광고선전비 사용한 시기: 현대차/LG전자/SK하이닉스-2024년 VS. 삼성전자-2022년

[그림] 연도별 국내 주요 대기업의 광고선전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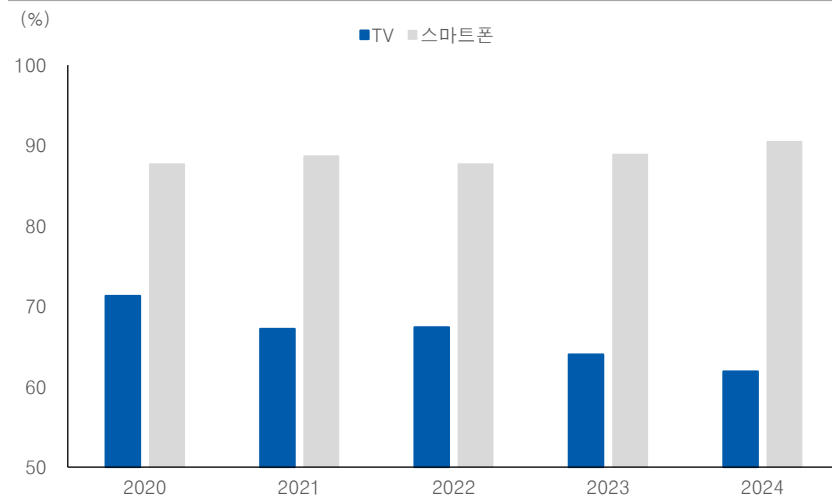


자료: Dar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광고 매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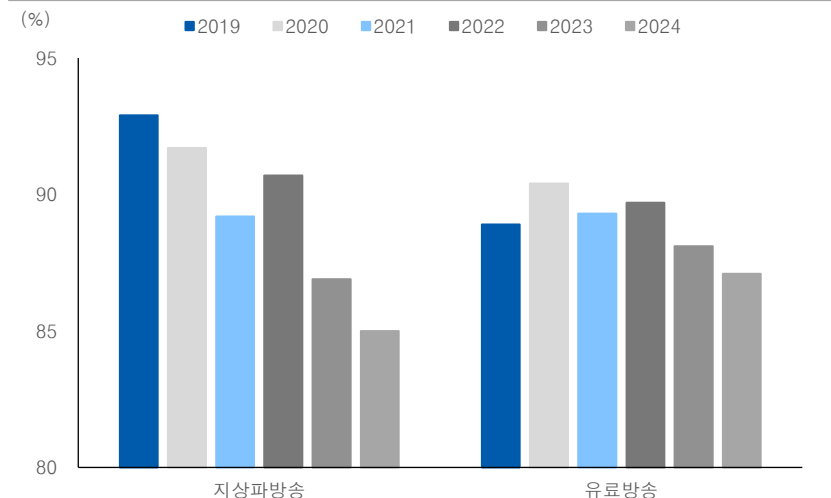
- 미디어기기 이용빈도(2020~2024년): TV에서 스마트폰으로 뚜렷한 전환
TV 시청 비율 2020년 71.3% → 2024년 61.9%(-9.4%P)
스마트폰 2020년 87.7% → 2020년 90.5%(+2.8%P), 태블릿 2020년 3.6% → 2024년 6.2%(+2.6%P)
지상파 시청자 & 유료방송 프로그램 시청 비중 축소
- 스마트폰 연령대별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 확대
40대: 2020년 95.9% → 2024년 97.3% / 50대 92.7%→95.7% / 60대 82.1% → 89.8% / 70대 이상 37.8% → 60.4%
Young Gen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 → 온라인 광고시장 중요도 상승

[그림] 미디어기기 이용 빈도(매일 사용): TV 감소 VS. 스마트폰 증가



자료: 방통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지상파 & 유료방송 이용률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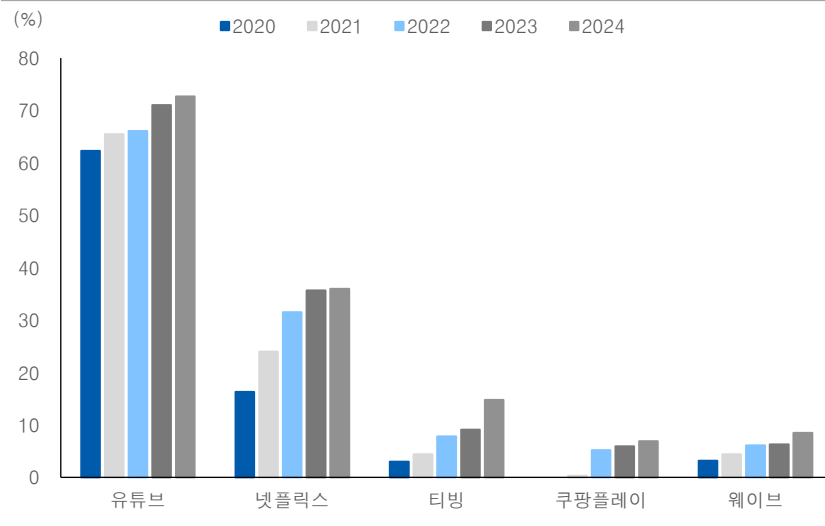


자료: 방통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OTT 미디어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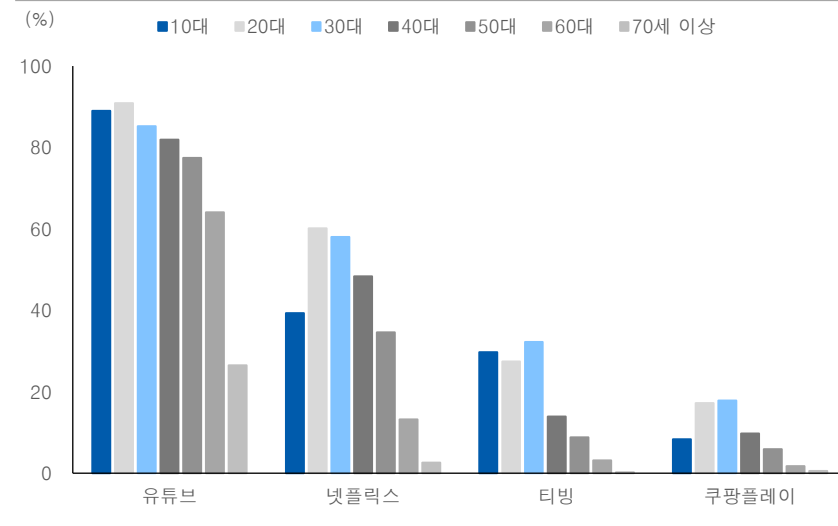
- 미디어랩사: 매체의 광고를 위탁받아 대행사와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회사
광고를 어디에 노출할지 여부를 계획, 광고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광고의 노출/클릭율/전환율 등을 분석하는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
- 광고주들이 TV 광고 선호 요인하는 요인: 불특정 Mass Marketing에 용이
- TV선호도 하락, 이를 OTT에서 대체 중
특히 20~40대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마케팅에는 OTT의 선호도 증가 추세 → OTT 미디어랩사 주목 필요

[그림] 국내 주요 OTT 이용률 추이



자료: 방통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국내 주요 OTT의 연령대별 이용률



자료: 방통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OTT 미디어랩사

- OTT기업들의 광고요금제 도입 확대: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
- 넷플릭스, 2022년 11월 국내에 광고형 요금제 도입(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VS. 스탠다드(13,500원)
고객이 스탠다드에서 광고형 스탠다드로 전환시 넷플릭스는 인당 8,000원/월(연 9.6만원) 손실 발생
→ OTT 기업들은 광고 수익을 통해 손실 Make Up
- CPM(Cost Per Mile), CPC(Cost Per Click) 등을 고려시 현재 요금제를 통한 손실이 광고수익보다 더 큰 상황
→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둔화시 요금제 인상이 진행 예상

[그림] 넷플릭스 광고수익보다 요금제 하락이 더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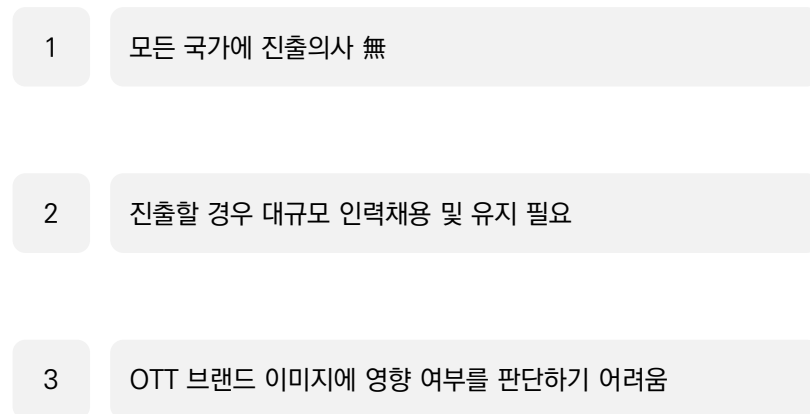
넷플릭스 요금제		넷플릭스 광고수익			
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광고형 스탠다드	3,480~10,400원		
스탠다드	13,500원	CPM (15초, 1,000회)	29,000원		
Gap	8,000원	광고 송출 콘텐츠 당 2~3회	광고당 10~30초	▶ 콘텐츠 당 평균 60초 광고	
		시청시간 2시간	드라마 기준 2편에 해당	▶ 일 평균 120초 월 평균 3,600초	10,440원
				▶ 일 평균 4회 월 평균 120회	3,480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OTT 미디어랩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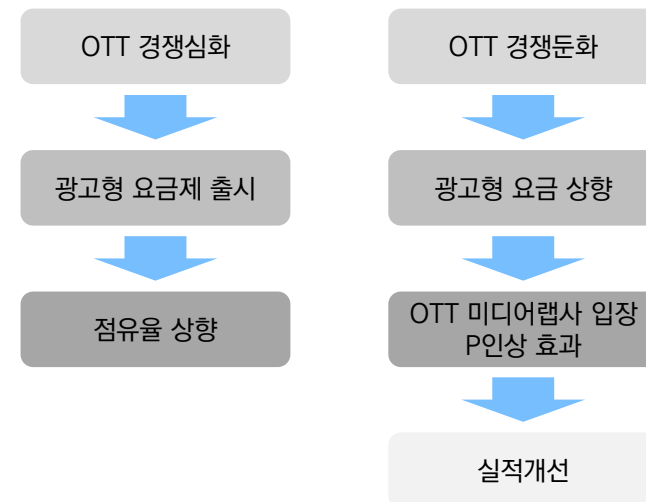
- 글로벌 OTT기업들이 미디어랩사를 활용하는 이유
 - 1)광고요금제를 진행하는 모든 국가에 진출 어려움
 - 2)해당 국가별 상이한 광고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력채용 및 유지 필요
 - 3)해당 국가 제품이 OTT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넷플릭스의 광고단가 상향 전망 → OTT 미디어랩사 입장에서는 P의 상승 → 실적개선
- 국내 OTT 기업 입장
 글로벌 OTT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광고 대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 → 미디어랩사 활용 가능성 높음
- 관련기업: 2H25 국내 OTT 미디어랩사인 KT나스미디어(089600), 인크로스(216050)에 대한 관심 必

[그림]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 진출 가능성이 낮은 이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OTT 경쟁 완화시 미디어랩사의 실적개선 기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PART 4. K-Fashion

본격화되는 K-Culture의 후광

1. K-Fashion의 달라진 위상

-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한국기업과의 협업 제안
LF,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마랑'에 협업을 제안해 단독 상품 선보여
푸마, 삼성물산 패션 브랜드 '준지'에 스니커즈 '스피드캣' 협업 제안
무신사, 글로벌 스니커즈 브랜드 '컨버스'와 협업해 '컨버스 원스타 무궁화'를 무신사 에디션으로 공개
- 해외 오픈런
우영미, 런던(2024년) · 파리(2023년) 단독 매장 오픈
마뽕김 日 시부야 팝업 첫날 3,000명 몰려

[그림]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 확대



자료: 삼성물산, 무신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일본에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K-패션 브랜드 마뽕김



자료: 마뽕김, 디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Fashion 단점들은 해소ing

- 단점
 1. 낮은 Brand 인지도: 유럽 패션을 한국화한 아시아 제품이라는 인식
 2. 해외진출에 소극적: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
 3. 원활하지 않은 해외 유통 플랫폼
- 2020년 이후 단점들이 해소
 1. 낮은 Brand 인지도: K-POP, K-DRAMA 후광효과로 브랜드 인지도 상향
 2. 해외진출에 적극적: 개별 상시 매장이 아닌 팝업 매장 활용
 3. 무신사 등의 기업들이 해외유통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

[그림] 해외진출의 교두보-팝업스토어



자료: 더현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해외유통 플랫폼 구축의 선두주자 무신사



자료: 무신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K-Culture 확대에 따른 수혜

-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한류(K-Culture)의 역사와 동행
- 1세대 한류: 1990~2002년. 한국 드라마 중심
- 2세대 한류: 2003~2009년. K-POP 중심
- 3세대 한류: 2010~2017년. 대중문화에서 화장품, 음식, 여행 등으로 확장
- 4세대 한류: 2018년 이후. OTT 기반 글로벌 확장

[그림] 세대별 한류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K-Culture 확대에 따른 수혜

구분	1세대 한류(97~02년)	2세대 한류(03~09년)	3세대 한류(10~17년)	4세대 한류(18년~)
진출 지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동남아	동남아	동남아	동남아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진출 영역		중동	중동	중동
		유럽	유럽	유럽
			아메리카	아메리카
				ETC
진출 영역	K-DRAMA	K-DRAMA	K-DRAMA	K-DRAMA
		K-POP	K-POP	K-POP
			K-BEAUTY	K-BEAUTY
			K-FOOD	K-FOOD
				K-FASHION
				ETC

4. K-Fashion 지속 성장 가능성 ①가성비

- 2023년 역대급 물가 인플레이션 → 소비심리 위축 → 가성비 수요 확대 → SPA 브랜드들의 매출 성장세
- K패션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 → 가성비 우수 VS. 미국/유럽/일본 등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성장
- K애슬레저 의류 역시 가성비 우수

[그림] 가성비



자료: 꼼데가르송, 마뎡김, 마르디 메크로디(Tshirt 화면 첫 제품 기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룰루레몬 VS. 젝시믹스 VS. 안다르 레깅스 가격



자료: 룰루레몬, 젝시믹스, 안다르(레깅스 화면 첫 제품 기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K-Fashion 지속 성장 가능성 ②K-Artist의 영향력 확대

- K-Artist의 앰버서더(Ambassador) 트렌드 변화
앰버서더로 선택된 아티스트 수 증가
샤넬/구찌/루이비통 위주 → 버버리, 불가리, 지방시, 펜디, 셀린느 등으로 브랜드 확대
국내 한정 앰버서더 → 글로벌 앰버서더
- 앰버서더로 K-Artist의 영향력 확대 & 다수의 제품의 모델 → K-패션 확장

[그림] 명품 앰버서더

브랜드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Q24
샤넬	GD		제니 김고은		이성경		민지 (뉴진스)	고윤정
디올		수지		세훈 (EXO) 지수 (블랙핑크)			TXT 지민(BTS) 해린 (뉴진스)	
구찌			카이 (EXO)	아이유	이정재 신민아	하니 (뉴진스)	박재범 박규영	
루이비통	배두나			혜인 (뉴진스)	전소미 정호연 이민호		제이홉 (BTS) 르세라핌	필릭스 (스트레이키즈) 뱀뱀 (갯세븐)
버버리				백현 (EXO)	차은우	손흥민 전지현	다니엘 (뉴진스)	
불가리			수호 (EXO)	리사 (블랙핑크)				민규 (세븐틴)
지방시					에스파		태양(빅뱅)	

자료: 언론보도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다수의 의류 모델을 하는 K-Artist



자료: 샤넬,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F&F(디스커버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K-Fashion 지속 성장 가능성 ③ 온라인 대응력 & 라이선스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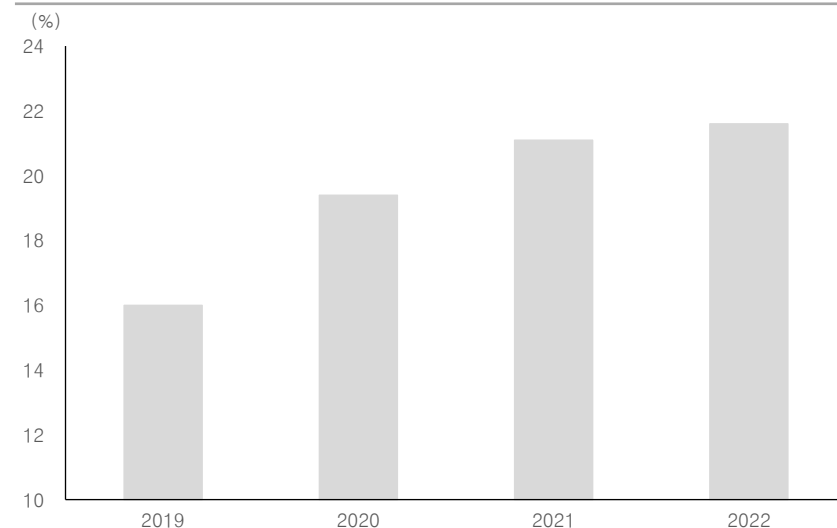
- 온라인 대응력

한국-이미 적응된 온라인 의류 구매 VS. 북미/유럽/일본-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의류 구매
모바일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 AI 기능 도입 & 빠른 배송 시스템

- 라이선스 브랜드

신규 브랜드 기획 - 제작 - 마케팅 - 매장구축 등에 대규모 자금 투입
글로벌 인지도 및 인기 보유한 외국 상표의 라이선스 사업 확대: 낮은 투자비 VS. 매출 연동된 로열티
MLB·디스커버리(F&F), BBC Earth(폰드그룹), 스노우피크(감성코퍼레이션) 등

[그림] 일본 의류시장내 이커머스 매출 비중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라이선스 브랜드 유통: Low Risk & High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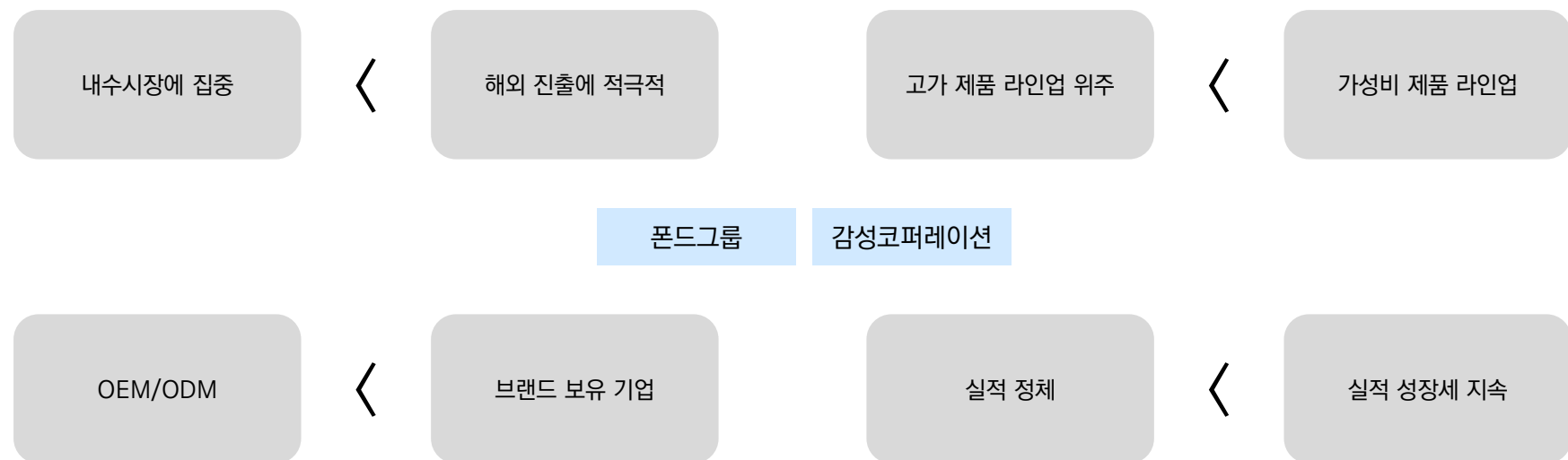


자료: 각사(F&F, 감성코퍼레이션, 폰드그룹),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5. 주목해야 할 K-Fashion 기업 요건

- 주목해야 할 K-패션 기업의 필요요건
불안정한 내수보다 해외수출에 적극적인 기업 주목
OEM/ODM기업 보다 브랜드 보유 기업에 주목
고가 제품이 아닌 가성비 제품라인업을 보유한 기업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기업
- 관련기업: 폰드그룹(472850), 감성코퍼레이션(036620)

[그림] 주목해야할 K-패션 기업의 컨셉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PART 5. Tech

먼저 준비하는 2026년

1. 유리기판

- 유리기판: 인터포저와 서브스트레이트에 유기/실리콘 기판 대신 유리 소재 사용
AI 시대 진입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 → 기존 대비 안정성과 전력효율이 높은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 증가
매끄러운 표면으로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 가능
- AMD, NVIDIA 등 AI반도체 기업, 유리기판 도입 추진
- 관련기업: 필옵틱스(161580)
TGV(Glass 홀 가공)장비와 Singulation(개별 유닛으로 분리)장비 등 다수의 라인업 보유 & 국내외 다수의 기업향으로 납품한 레퍼런스 보유

[그림] 유리기판 VS. 유기/실리콘 기판

핵심요소	Glass	유기		실리콘
		적층	팬아웃	
표면 거칠기(nm) ¹⁾	<10	400-600	>1000	<10
CTE(ppm/K) ²⁾	3-9	3-17	16-30	2.9-4.0
영률(Gpa) ³⁾	50-90	10-40	22	165
열 전도율(W/m.K) ⁴⁾	1.1	0.9	0.5-0.8	148
유전상수 ⁵⁾	5.7	-	-	11.7
패키징 크기(mm)	100*100	70*70	50*50	35*35
웨이퍼/패널 크기(mm)	710	710	300/510	300

자료: PENN STATE CHIMES, 필옵틱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유리기판을 준비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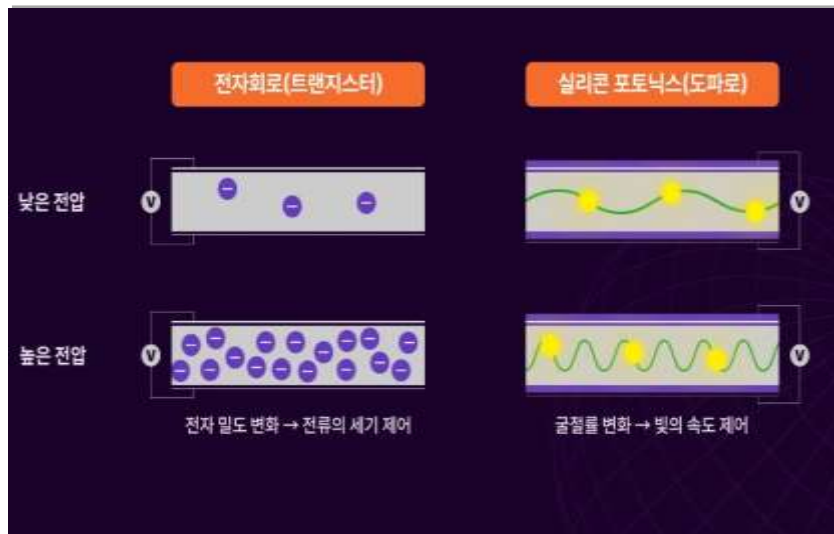
IDM	PKG	Glass
Intel	삼성전기/LG이노텍 /애플릭스	쇼트
AMD	DNP/신코(일본)	아사히글라스
NVIDIA	유니마이크론(대만)	코닝
TSMC	AT&S(오스트리아)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실리콘 포토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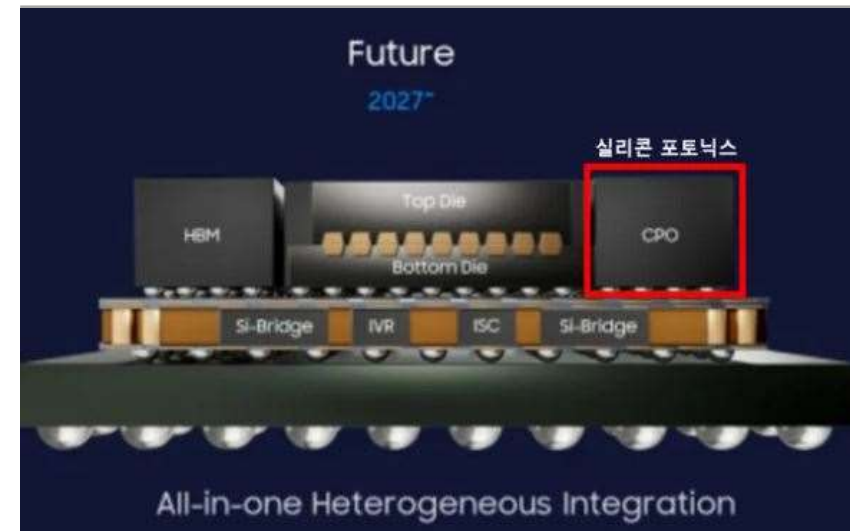
- 실리콘 포토닉스(SiPh, Silicon Photonics): 실리콘과 광학(포토닉스)의 결합해 전자 대신 빛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도체
- 실리콘 포토닉스 장점
 -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이론적으로 전기 신호 기반 반도체보다 100배 이상 정보를 1,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전송 가능
 - 낮은 전력소비: 광 신호를 사용, 전력소비가 적고 발열이 낮아 에너지 효율성 높음
 - 소형화 및 직접화: 기존 CMOS 공정과 호환, 소형화가 가능하며 전자 및 광학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통합 가능
- 사용기대 분야: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광통신, 센서, 칩 간 연결
- 관련기업: 한국첨단소재(062970)-한국광기술원으로부터 실리콘포토닉스 소자 기반 온도 센서 기술 이전

[그림] 실리콘 포토닉스



자료: SK하이닉스, 산, 무신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내 실리콘 포토닉스 적용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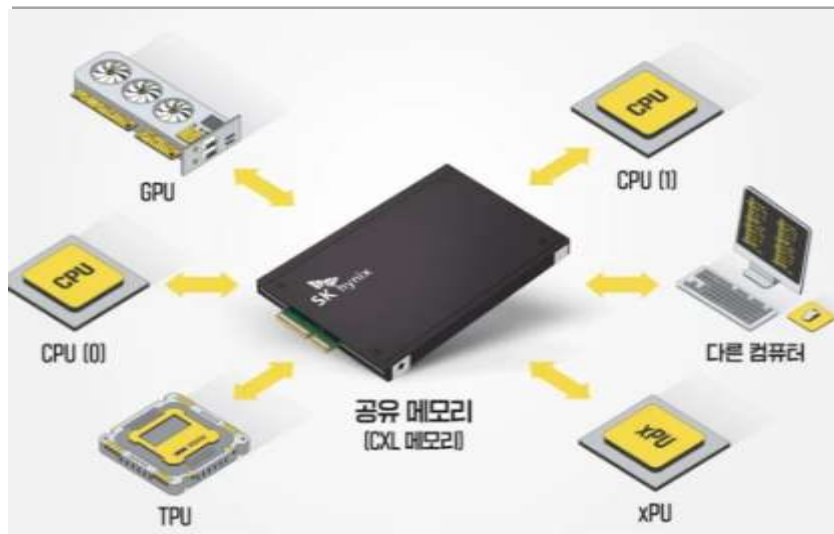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CX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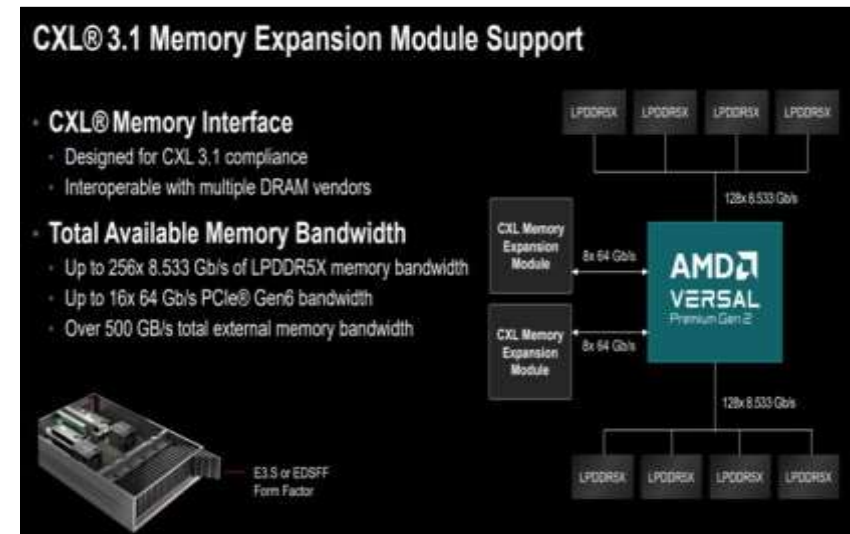
- CXL(Compute Express Link): 핵심 프로세서와 GPU, AI가속기, 메모리 등 장치를 연결하는 차세대 프로토콜
2019년 CXL 컨소시엄 출범, 2020년 이후 AI, 머신러닝 등 빅 데이터 기반 산업이 빠르게 발전 시작,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 증가
- HBM VS. CXL
HBM-고대역폭에초점, CXL은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진 메모리
HBM-DRAM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대역폭 개선 VS. CXL 기존에 있던 여러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 각 장치를 직접 연결, 메모리 공유 통해 용량 확장
- CXL 2.0: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 풀을 형성, 이 풀을 여러 호스트가 스위치를 통해 공유
CXL 3.0: 각 프로세서가 들어간 여러 개의 메모리 풀들을 멀티-레벨 스위치 구조로 연결 → CPU 하나당 4,000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 연결 가능
- 관련기업: 엑시콘(092870)-CXL 3.1 테스트 장비 개발 중

[그림] CXL에서 공유 메모리의 활용



자료: SK하이닉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AMD CXL 3.1 적용한 FPGA Chip 2026년 하반기 출시 목표 공개



자료: AM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액침냉각

-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서버 및 IT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
공랭식(Air Cooling): 낮은 비용 vs. 낮은 열전달 효율 & 공간적 비효율성
액체 냉각(Liquid Cooling): 높은 냉각 효율 VS. 초기 설치 비용 & 누수 관리 필요
액침 냉각(Immersion Cooling): 서버장비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그는 방식. 높은 냉각 효율 VS. 특수장비 필요 & 유지보수의 어려움
업계, 액침냉각 적용시 공기냉각 대비 서버실 유틸리티 전력량 58% ↓, 서버팬 전력량 15% ↓, 서버실 면적 70% ↓ 등 효과 예상
- 엔비디아 잭슨황, 2Q24 실적발표 컨콜에서 “액침냉각 적용시 AI능력을 5배 이상 향상” 언급
- 관련기업: 신성이엔지(011930)-냉방공조 기술 보유 & 데이터빈과 액침냉각 장비 개발

[그림]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

냉각방식	장점	단점
공랭식	초기비용 저렴 유지보수 용이	높은 에너지 소모 공간 차지
액체 냉각	높은 효율 고밀도 환경에 적합	초기 설비 비용 누수 위험
액침 냉각	매우 높은 효율 고성능 컴퓨팅에 적합	유지보수 적합 특수장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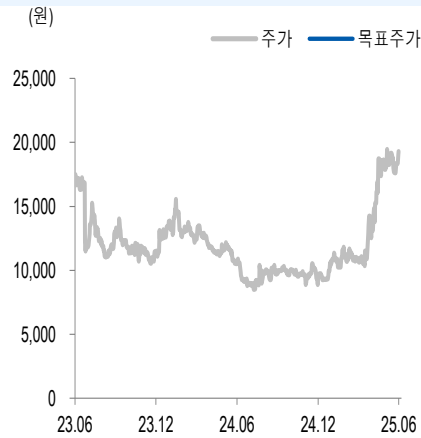
자료: 인프라큐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액침냉각 필요성 강조한 잭슨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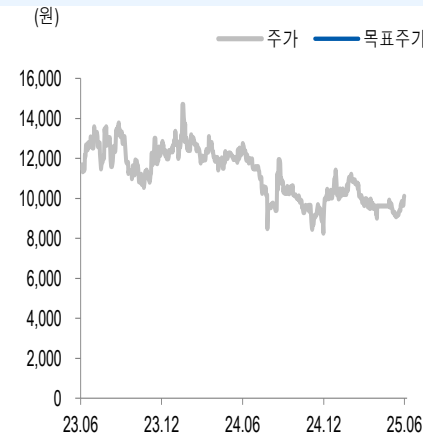
자료: 엔비디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니언스 (2638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5-04-23	Not Rated	-	1년		
담당자변경					
2025-03-28	1년 경과 이 후		1년		
2024-03-28	Not Rated	-	1년		

라운시큐어 (0425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4-09-25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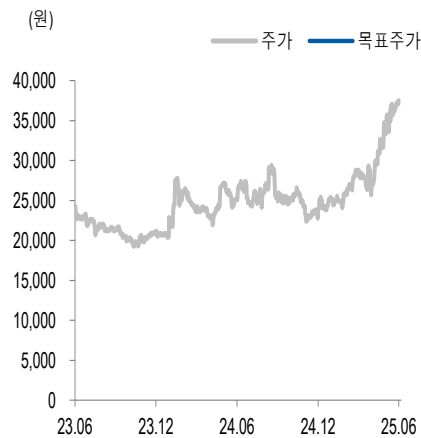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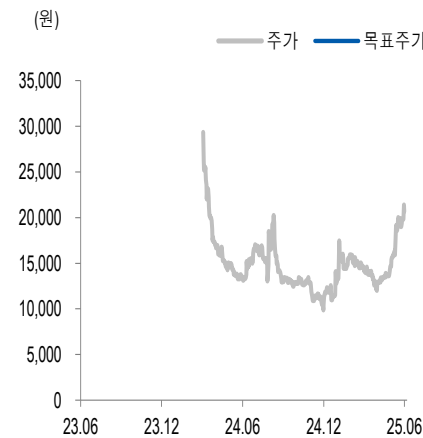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슈프리마 (2362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3-08-25	1년 경과 이 후		1년		
2022-08-25	Not Rated	-	1년		

오상헬스케어 (0362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5-05-0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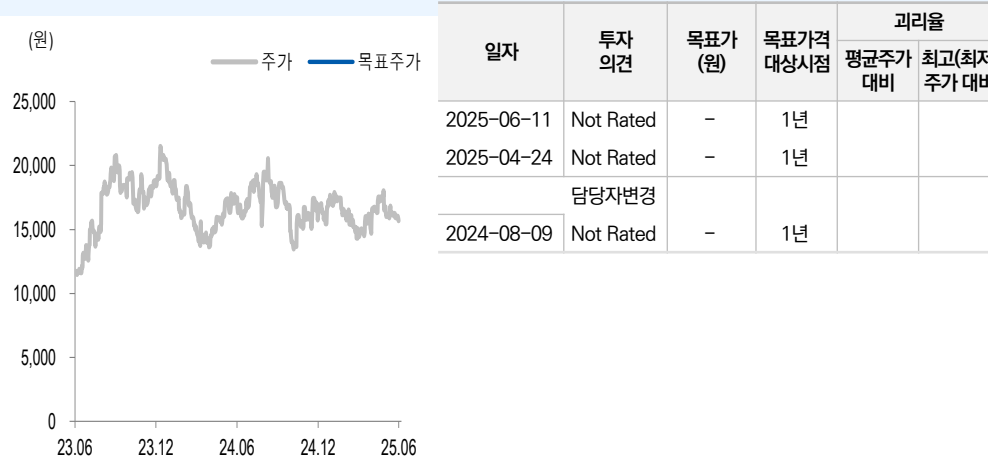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바디텍메드 (206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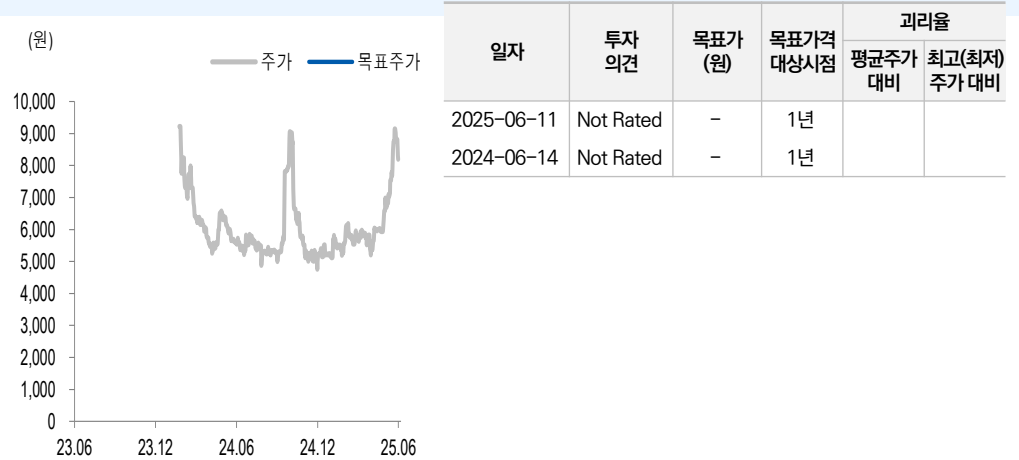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폰드그룹 (4728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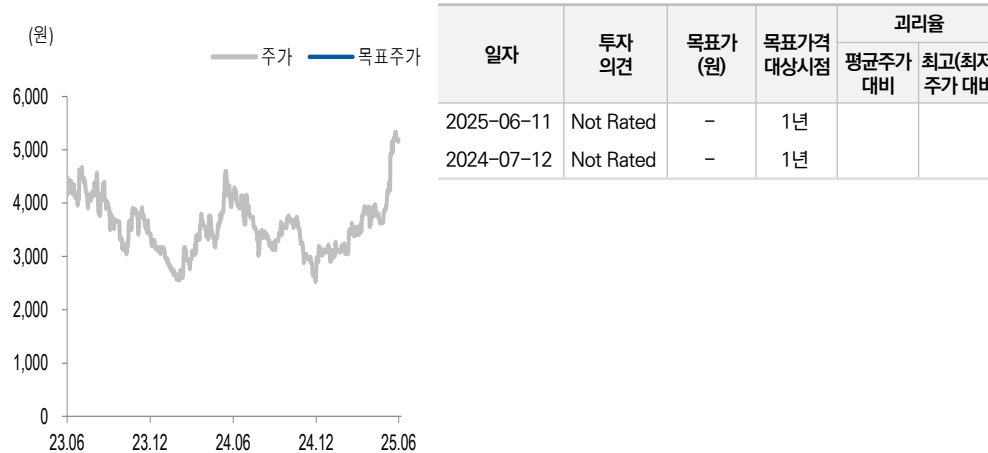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감성코퍼레이션 (0366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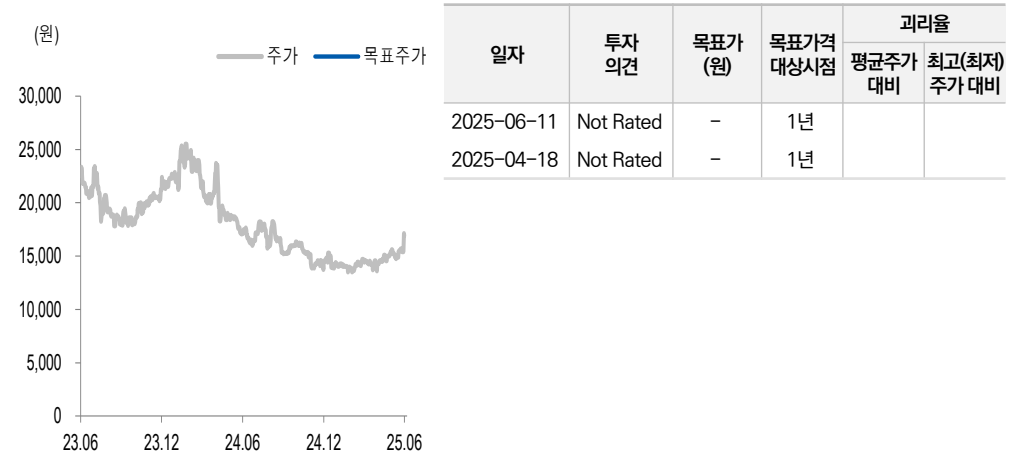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KT나스미디어 (0896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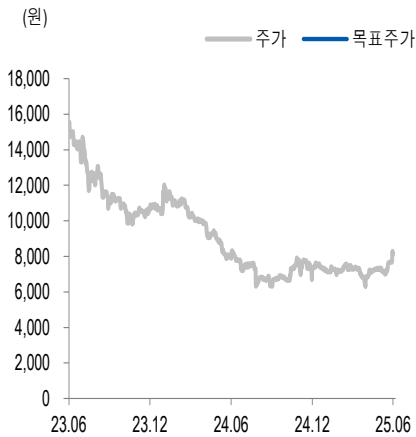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인크로스 (2160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5-04-18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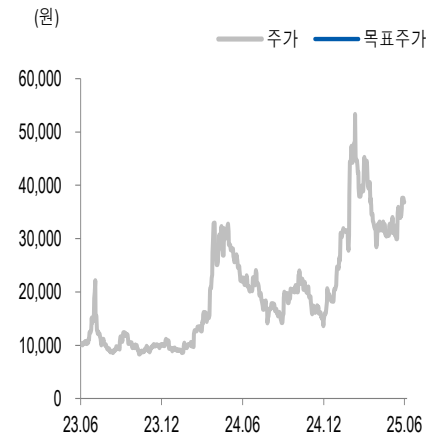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필옵틱스 (1615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5-01-04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1-04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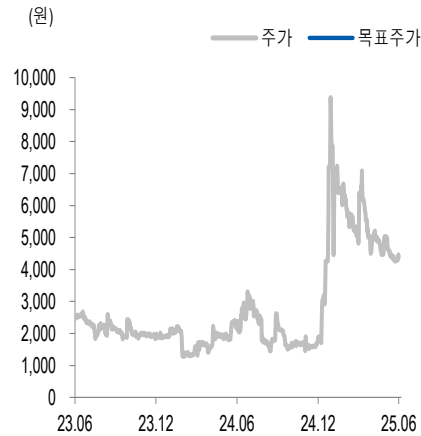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한국첨단소재 (0629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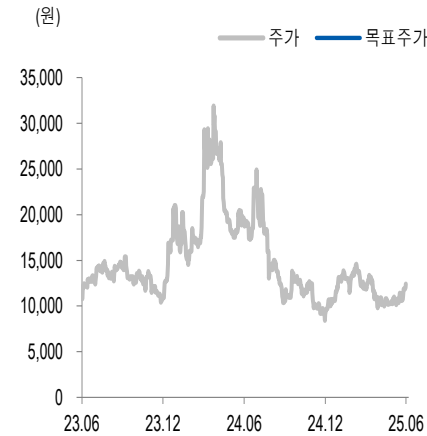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엑시콘 (0928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5-01-21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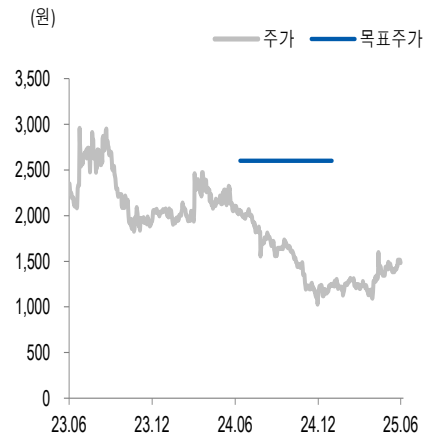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신성이엔지 (0119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6-11	Not Rated	-	1년		
2025-05-30	Not Rated	-	1년		
담당자변경					
2024-06-21	BUY	2,600	1년	-39.89	-20.58
2023-08-04	1년 경과 이 후		1년		
2022-08-0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6
Hold(중립)	6.4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6-11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전략

팀장 Strategist	김용구	3770-3621	yg.kim@yuantakorea.com
Global Strategist	민병규	3635	byungkyu.min@yuantakorea.com
Passive/ETF Analyst	고경범	3625	gyeongbeom.ko@yuantakorea.com
Economist/ESG	김호정	3630	hojung.kim@yuantakorea.com
US Market Analyst	황병준	3523	byeongjun.hwang@yuantakorea.com
Quant/ETF Analyst	신현웅	3634	hyunyong.shi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박성철	3632	seongcheol.park@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임지윤	3527	jiyoon.l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혜원	3526	hyewon.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세빈	3646	sebin2.kim@yuantakorea.com

채권분석

팀장 Credit Analyst	유태인	3770-5571	taein.yoo@yuantakorea.com
Fixed Income Strategist	이재형	5579	jaehyung.lee@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김현수	5582	hyunsoo.kim@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신연화	5721	yeonhwa.shin@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공문주	5586	moonju.kong@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이소윤	5572	soyoon.lee@yuantakorea.com
Credit Analyst	황태웅	5578	taewoong.hwang@yuantakorea.com

기업분석

팀장 2차전지/신에너지	이안나	3770-5599	anna.lee@yuantakorea.com
인터넷/SW	이창영	5596	changyoung.lee@yuantakorea.com
화학/정유	황규원	5607	kyuwon.hwang@yuantakorea.com
스몰캡	권명준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철강/금속	이현수	5718	hyunsoo.yi@yuantakorea.com
화장품/유통	이승은	5588	seungeun.lee@yuantakorea.com
제약/바이오	하현수	2688	hyunsoo.ha@yuantakorea.com
통신/지주/방산/우주	이승웅	5597	seungwoong.lee@yuantakorea.com
조선/자동차	김용민	5606	yongmin.kim@yuantakorea.com
미디어/엔터	이환욱	5590	hwanwook.lee@yuantakorea.com
음식료/전력기기	손현정	5595	hyunjeong.son@yuantakorea.com
반도체	백길현	5635	gilhyun.baik@yuantakorea.com
건설/기계	장운석	5583	yoonseok.chang@yuantakorea.com
금융	우도형	5589	dohyeong.woo@yuantakorea.com
전기전자	고선영	3525	sunyoung.kou@yuantakorea.com
스몰캡	백종민	5598	jongmin.baik@yuantakorea.com
운송	최지운	3640	jiyun.choi@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박현주	2672	hyunjoo.park@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도엽	5580	doyub.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서석준	5585	seokjun.seo@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조혜빈	5594	hevin.cho@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한동우	3647	dongwoo.han@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임석민	3648	seokmin.l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김고은	3649	koeun2.kim@yuantakorea.com
Research Assistant	배종성	3643	jongsung.bae@yuantakorea.com

